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4권 5호 통권20호 1982. 10

卷頭言 國民輿望과 教育投資

論 壇 韓國教育을 생각한다.
— 世界教育의 흐름 속에서 —
○국어 교육의 역사와 민족 주체성
○學校體育의 振興方案
○自律化와 學生指導

特 輯 民族 主體性教育의 展開
○民族 主體性 教育의 새로운 要請
○主體性 確立을 위한 國史認識의 새 方向
○國際理解 教育의 理想과 民族 主體性
○外國教科書에 비친 韓國의 이미지
○民族 主體性 確立을 위한 教育의 課題
— 哲學的 觀點에서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敎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敎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이며 科學的인 硏究를 遂行하고, 韓國敎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硏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敎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敎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6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硏究機關입니다.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연구개발 및 현장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교육전문지 입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이 간행물을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활동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편집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발
20호
1982. 10.

目 次

題字 孫在馨
表紙 申允澈

卷頭言 國民輿望과 敎育投資……金 永 哲／3

論 壇 韓國敎育을 생각한다 : 세계 교육의 흐름 속에서

국어 교육의 역사와 민족 주체성……허 웅／5

學校體育의 振興 方案……姜 相 兆／8

自律化와 學生指導 ……金 炳 聲／12

特 輯 民族 主體性 敎育의 展開

民族 主體性 敎育의 새로운 要請……金 容 雲／15

主體性 確立을 위한 歷史認識의 새 方向 ……李 鉉 淙／19

國際理解 敎育의 理想과 民族 主體性 敎育 ……李 存 熙／23

外國敎科書에 비친 韓國의 이미지 ……社會科敎育硏究室／27

民族 主體性 確立을 위한 敎育의 課題 ……金 安 重／41
——哲學的 觀點에서——

硏究報告 本院 硏究報告 抄錄

國民學校 敎科用圖書 現場實驗硏究(Ⅰ)……／45
——1·2·3學年用을 中心으로——

韓國兒童의 言語發達硏究 ……／45
——音韻發達 및 語彙發達을 中心으로——

敎育 Thesaurus 開發硏究 ……／46

새 敎育體制 適用學校의 學業成就度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46

體育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善을 위한 基礎硏究 ……／46

敎育學散策 敎育哲學의 性格과 機能……曺 和 泰／47

紙上中繼 敎科書 開發의 原理(세미나 요약)

敎科書 開發의 原理와 節次 ……／49

敎科書 開發의 技術的 側面 ……／53

敎育資料情報 敎育에 있어서 컴퓨터의 活用 ……／58

離職者名單 本院 發展에 寄與하고 離任하신 분들……／62

院內動靜 消息……／65

편 집 위 원
——◇◇——
위원장 오 진 석
위 원 강 상 조
곽 병 선
김 영 철
김 학 천
박 승 해
(가나다順)

교육방송 중계탑

1982학년도 2학기 라디오 교육방송 주간 편성표

(1982.8.30 ~ 1983.2.28)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 00	교육방송안내						
05	1 바른생활	1 바른생활	1 바른생활	1 즐거운생활	우리의 소원	우리함께그려요	10 아름다운 우리강산
15	2 바른생활	2 바른생활	2 즐거운생활	2 바른생활		우리가락 우리노래	
25	음악감상					노래로배우는 영어	어린이극장
45	3 도덕	3 국어	3 사회	3 음악	이야기국사	재미있는 세계역사	세계여행기
11 00	4 음악	4 사회	4 국어	4 도덕	특별활동을 보람있게	고마운사람들	재미있는 과학교실
15	좋은말씀한마디						
20	5 국어	5 음악	5 도덕	5 사회	동물의세계	우리자랑 학교자랑	옛날옛날에
40	6 사회	6 도덕	6 음악	6 국어	스포오츠백과		스포오츠한국을 빛낸 얼굴들
12 00							
	빛을남긴사람들			이주일의명작			작품해설과감상
20	정오의음악선물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재)
40	영어교실						
13 00							
	왜그럴까요?						미래의세계
10	노래로배우는 영어(재)	1 바른생활(재)	1 바른생활(재)	1 바른생활(재)	1 즐거운생활(재)	아! 토요일이다.	
20		2 바른생활(재)	2 바른생활(재)	2 즐거운생활(재)	2 바른생활(재)		우리자랑 학교자랑(재)
30	재미있는 세계역사(재)	3 도덕(재)	3 국어(재)	3 사회(재)	3 음악(재)		
45	고마운사람들(재)	4 음악(재)	4 사회(재)	4 국어(재)	4 도덕(재)	'88의 주인공들	
14 00							
	동물의 세계(재)	5 국어(재)	5 음악(재)	5 도덕(재)	5 사회(재)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	교육방송 일요특집
20	스포오츠백과(재)	6 사회(재)	6 도덕(재)	6 음악(재)	6 국어(재)		일요음악회
40	어머니교실			교사의시간		교육정담 내일의 교육을 생각한다.	
15 00							

방송 : KBS교육 라디오(FM)

卷頭言

國民輿望과 敎育投資

金 永 哲
(敎育政策硏究 1 室長)

I

한 가정의 경제를 가계라 하고, 한 국가의 경제를 재정이라 한다. 가계와 재정의 차이는 가계는 들어 올 수입에 따라서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반면에 재정은 쓰여질 지출 규모에 따라 세입을 결정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의 공통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세입(수입) 규모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세출(지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한 국가의 재정 용도 및 규모, 그리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다양하듯이, 한 가정의 가계에서도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에 관해 고심하게 된다. 가계 지출은 가족의 생활을 위한 의·식·주 지출과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출 및 오락, 문화 생활 등을 위한 제반 경비 지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정에서의 가계 지출 형태를 Maslow의 欲求體系理論에 따라 해석한다면, 가장 급한 것이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리적 욕구 충족의 지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다음으로 사회 참여에의 욕구, 사회적 인정 욕구 및 자아 실현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비 지출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모들이 실제로 가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한 한 반드시 이 이론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즉, 가계의 여유가 있고 없음에 관계 없이 모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식·주 등의 기본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 부모가 경영하는 사업 등을 확장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거나 심지어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부모를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II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이 국가의 교육 사업에서는 비일 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제정된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은 국민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방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1972년 8.3조치에 의해 그 법에서 정한 법정 교부율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 후 교육 현장에서는 격심한 재정난을 겪어야 했고, 그 결과 학교 교육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교원의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교직 기피 현상 및 교원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정부는 교육의 재기를 위해 1982년도부터 교육세를 신설하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의 법정 교부율도 부활시키도록 하여 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5년간의 시한성을 가진 교육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만으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낙후되어 온 교육 여건을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부금법의 법정 교부율을 부활하면서, 교육세 신설을 이유로, 내국세의 12.98%였던 지방 교육 재정 교부율을 보통 교부율인 11.8%만을 부활시키고 특별 교부율은 매년 정부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실제 교부율이 종전의 법정 교부율에 훨씬 미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 재정의 압박을 쉽게 면하기는 힘들 듯하다. 더우기 최근 내국세의 減收로 인하여 교육세의 세수입까지 당초 목표액보다 훨씬 밑돌고 있어서,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Ⅲ

우리 나라는 일제하에서 제한된 교육을 받아오다가 해방과 동시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부족했던 몫까지도 자녀 교육을 위한 투자에 정열을 쏟는 바람에 교육 인구는 크게 늘어 났다. 이러한 교육 인구의 양적 확대로 말미암아 침체되었던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은 지난 40여 년간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아래서도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부존 자원이 빈약한 상황 아래서도 풍부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1960년대 이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의 국가 정책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제일주의라는 지상 과제에 따른 경제 개발 투자 때문에 우선 순위가 뒤로 미루어져야 했다.

Ⅳ

1980년대에 접어 들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 국민 총생산도 크게 늘고, 무역 수출고도 크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 정책도 단순한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 환경은 예나 다름 없는 구태 의연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학급 수용 인원은 7~80명을 넘어서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하고, 학교 규모는 너무 비대화되어 매머드 학교 건물 아래 학생들이 뛰어 놀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주거 시설에 비해 너무나 낙후된 학교 시설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인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인간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실물에 대한 투자 수익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경제 성장은 교육에 의해 양성된 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인간 자본 형성의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보다는 학부모가 주로 담당하여 왔다.

Ⅴ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향후 국가 정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부모가 생계비까지를 절감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을 기르는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인간 자본 형성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측면 외에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의 역사관을 일신하여,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는 확보된 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국어교육의 역사와 민족주체성

허 웅
(한글학회 이사장)

I

말이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데 봉사하는 연모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모의 구실을 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학자나 언어학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긍정적이란, 말의 구조가 그 말을 모국말로 하여 자라는 사람의 정신 세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7세기의 우리 나라 정치가이며 소설가인 서포 김 만중(金萬重, 1637—'92)은 그의 저서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에 가락이 붙으면 가시문부(歌詩文賦)가 된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진실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붙이면 곧 족히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에도 통할 수 있는 일이니, 이것은 오직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란 말을 남기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게 된 말에 가락이 붙으면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에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지극하면 하늘에도 통할 수 있듯이,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타난 말도 역시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 만중은 말과 사람의 마음과는 같은 것의 안팎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II

그러면 과연 말이 마음과 일치하는 것일까? 말이 마음의 움직임(정신 작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필자의 고향은 경남 김해이다. 이 지방의 방언은 여섯 홑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곧 앞홑소리의 /이/와/에, 애/, 가운데 홑소리의 /으, 어/와 /아/, 뒤홑소리의 /우/와 /오/의 여섯인데, 여기 두 빗금 안에 표기한 /에, 애/, /으, 어/ 따위는 두 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음소)라는 표시이다. 이것은 말의 구조이다.

이 구조가 일단 머리에 심어지면 한 평생 잘 변하지 않고, 다른 말의 구조를 잘 받아 들이지를

않는다.

필자는 서울에서 생활한 햇수가 내 평생의 거의 삼분의 이가 되는데도 서울 표준말의 홀소리 체계를 아직 내 머리 속에 정착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에/와 /애/, 그리고/으/와 /어/에 대해 나는 즉각적으로 그 다름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으며, 주의를 소홀히 하면 이 소리들을 바르게 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이것은 내가 어릴 때에 배운 말소리의 체계가 내 관념의 세계에 심어졌기 때문인데, 이 관념의 세계는 서울 표준말의 체계로 심어지는 관념의 세계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의 「박, 밭, 밥」의 끝소리(받침)를 구별해 듣기 어려워하며, 대개는 「바」라는 소리로 듣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 일본말에는 CVC의 음절 구조가 없으며, 모두(C) V형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CVC의 한 음절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들의 음절 관념에 끌려 CV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또 이런 일을 경험한다. 서울에서 여주로 가 보면, 팔십 몇 킬로라는 표지가 있다. 그러나 이 말로는 그 거리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것을 넷으로 나누어 열곱으로 해 보아야 거리에 대한 실감이 생겨난다. 곧 「이백리」라 해야 꽤 멀구나 하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 이유도 앞에 말한 소리의 경우와 똑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곧, 어릴 때 「십리, 백리, 천리, 만리」란 낱말의 체계로 심어진, 거리에 대한 감각(관념)은 한평생 바뀌어지지 않고, 다른 말의 거리 단위 체계를 좀처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쇠고기를 600그람을 단위로 팔고 있는 것도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곧 「근」과 「관」이란, 무게에 대한 말의 체계로 심어진 무게감은 좀처럼 바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람 체계로 말을 고쳐 놓아도 관념이 거기에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600그람(한 근)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다.

Ⅲ

개별 언어의 체계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각 다른 말의 체계로 심어진 관념의 체계(정신 세계, 사고 방식)는 역시 그에 따라 각각 다르리라는 것은 쉽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각 겨레의 사고의 방식, 곧 겨레 정신이 전적으로 말의 체계에 따라 만들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겨레의 겨레 정신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지리라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말의 체계가 여기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리란 것은, 앞에 들어 보인 몇 가지 사실로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면 한국말로써 심어져야 하는 한국 사람의 관념의 세계는 순수하고 순조롭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옛날, 어릴 때부터 한문 배우기를 강요당하고 살았었다. 한문은 중국말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그 때 우리 조상들은 두 언어 체계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 셈이다. 아직 모국말의 체계가 완전히 관념의 세계에 심어지기 전에 중국말의 체계가 여기에 심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소수의 양반 집안의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층이었던 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를 움직여 온 지배층은 어릴 때부터 정신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살아 온 것이다.

일제 시대에는 이 현상이 더욱더 심했었다. 아직 한국적인 정신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본말의 체계가 여기 겹쳐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한문 세대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한문 세대나 일본말 세대들은 모두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한문 세대에 있어서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자리는 전혀 없었다. 서당에서는 한문만 가르쳤고, 국어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한문의 뜻풀이에 국어가 쓰였을 뿐이다. 일제 시대 초기에는 국어 과목이 이름으로는 있었으나 사실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고, 이것마저 그 말기에는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보아 오면, 우리 겨레는 지난날, 제 말로써 심어지는 정신 세계를 가꾸지를 못하고서, 언제나 다른 언어 체계, 따라서 다른 정신 세계가 여기 겹쳐져 혼선을 일으키면서 살아 온 것

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지난날 우리 나라에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타나지 못했고, 훌륭한 문학 작품이 나타나지 못한 중대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Ⅳ

우리 겨레의 역사에 있어서 참된 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해방 뒤라 보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여기 또 다시 국어 교육, 따라서 한국적인 정신 세계의 형성에 먹구름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은 지난날의 언어 생활의 찌꺼기가 가시어 지지 않은 데다가 영어가 지나치게 우리 언어 생활과 언어 교육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말의 범람은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아버지—부친—엄친—가친—춘부장…」 등등 한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둘 이상 있어서는 다른 폭 넓은 어휘를 습득하는 데 지장이 되고, 따라서 폭 넓은 사고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 「독서, 등산, 무소부지, 난형난제」 따위 우리말의 구조에 맞지 않은 말들의 범람은, 우리의 사고의 결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제 나라말의 특색을 잘 살펴 쓰지 못하는 일이 많다. 「아홉 시부터 열 시까지」면 될 것을 「自九時至十時」로 적는다. 「한 사람에 백 원」이면 되는 표현법을 「每一人當百圓」이라 적는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아닌가? 이러한 예는 이루 셀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지난날의 한문 세력 때문에 한국적인 사고의 결에 혼선이 생겨 우리들이 제 말을 제대로 부려 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말의 찌꺼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Ⅴ

이러한 언어 생활을 벗어던지고, 한국 사람다운 정신을 길러 줄 한국말을 다듬고 교육하는 일, 이것은 국어 교육자, 아니 교육자 전체가 짊어져야 할 매우 중대한 과업이다. 그런데 이 과업이 과연 잘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가?

해방 뒤에 교육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기뻐할 일이었으나, 그 반면 교육의 내실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겼다. 「콩나물 교실」이란 말이 바로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콩나물 교실에서는 모든 과목의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 중에도 특히 국어 교육이 가장 어려워진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필자는 글짓기 교육은 국어 교육의 완성 과정이라 보고 싶다. 듣기와 읽기는 남을 이해하는 과정이오, 말하기와 쓰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과정인데, 이해는 자기를 나타냄에서 살아나고, 나타냄은 쓰기에서 정밀해 진다. 쓰기의 과정은 단순한 나타냄이 아니라, 생각의 결을 가다듬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훈련하게 된다.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만들어 준 한국말로써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의 겨레 정신을 체득하는 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해방 뒤의 국어 교육에서 가장 실패한 일이란 데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하루 바삐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국민 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어 교육의 강화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요즈음 일본의 역사 거짓 꾸미기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 나라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그 교육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민족의 주체성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어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자들이 지금 어째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안타깝게 여겨진다. ◎

論壇 韓國敎育을 생각한다(世界敎育의 흐름 속에서)

學校體育의 振興方案

姜 相 兆
(企劃調整室 硏究調整 擔當)

序

學校體育의 方向을 설정하는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은 못된다. 그 동안 많은 주장이 올림픽 개최 소식과 함께 제기되었고, 지적된 대부분의 주장이 體育 敎育條件(시설 및 교구)의 확보, 교과 운영의 정상화, 교사의 자질 향상과 대우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체육 振興과 관련하여 지면이 할애되면 강조되어 왔던 위의 문제들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重要性은 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본고에서는 체육 교육의 방향에 한정시키려고 한다.

I

「체육은 어떠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관심있는 논의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 학교 체육은 오래 동안 경직된 劃一化의 풍토에서 교육해 온 타성 때문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체육 교육의 內實化를 위한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학교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체육 활동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우승 등 체육 활동의 결과적 사실에 가치를 부여해 왔다.

학교 스포오츠의 공통적인 특징은 選拔 내지는 選擇的 機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학교 스포오츠는 선택된 특수 학생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敎育機會의 不備點에서 오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학교 체육은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택·변별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지닌 特性과 能力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체육은 청소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야 한다는 기본적 敎育觀을 수립해야 하며, 개개인이 최적의 학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조건을 정비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의 운동선수가 갖는 교육적 혜택(학비 면제, 장학금 등)과 교육적 기회 손실(교육과정의 불충실한 이행)의 累積은 자칫 학교 체육이 교육에서의 특권층을 형성·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스포오츠 활동이 마치 「運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運動選手의 것」이라는 부정적 개념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교 체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는 교육 기회의 均等指向的 입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남·여에 관계없이, 운동 선수와 일반 학생의 구별없이 균등한 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개개의 학생들이 지닌 가능성이나 능력을 계발시켜 다각적인 社會變化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학교 체육은 그 목적이 한 차례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즉, 체육은 「身體의 敎育」에서 「身體를 통한 敎育」의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전환은 체육의 교육 목표에도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학교 체육의 실제는 아직도 「身體의 敎育」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체육 교육 목표와 운영 실제간의 괴리 현상은 교육관의 변화에 대한 체육 교육 과정의 適應力 부족을 실감케 한다. 체육이 「身體를 통한 敎育」으로의 實踐的 轉換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몇 가지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학교에서의 스포오츠 활동이 승리와 우승에 존재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 선수, 경기장 폭력사태를 초래하였고, 사회성 함양이라는 목표(질서 교육·의식 교육·스포오츠맨쉽의 함양)는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

「身體의 敎育」과 「身體를 통한 敎育」간의 가장 분명한 差의 하나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습 목표와 아동 욕구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체육 교육 과정의 다양한 내용 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종래의 단조로운 體操(gymnastics) 중심의 활동으로 부터 개인 및 단체 스포오츠, 수영, 리듬, 체조 등 다양한 활동을 교육 과정에 삽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신체를 통한 교육의 대두는 학교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體育 敎科가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의 체육은 우리 나라 체육 교과 운영면에서 볼 때 이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설정된 체육 교육 목표가 학생들에게 모두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학교 체육의 부실화를 초래케 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들의 集合으로 볼 수 있다. 體育政策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처방에 의해 설정될 때 이는 또 다른 부실화를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 체육 과정의 목표·운영이 실제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체육 교육의 實像에 대한 정직한 診斷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Ⅱ

학교 체육에서 基礎體力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는 교육 과정 속에서 기초 체력의 중요성과 현재 및 미래의 인간 생활에서 기초 체력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초 체력을 논할 때 體育人은 각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주의 깊게 선정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運動이 호흡 순환 기능을 증진시킨다거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정도를 아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정도의 지식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될 수 있다. 사려성이 없는 교사는 흔히 수업 개시 전에 5분간의 體操를 시키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작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量과 速度와 規則性을 가지고 수행된 어떤 특정한 운동이 훈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체육인은 또한 각자의 주장이 미성숙한 주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체육인들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에게 누적된 긴장과 불안을 운동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運動心理學者들은 그와 같은 운동의 淨化的 효과에 대한 주장을 확인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의 학자들은 긴장 이완의 정도는 게임이나 試合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고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도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있다. 즉, 긴장과 불안의 이완은 身體活動에 의한 것인가 혹은 게임이나 시합에 몰두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만일 긴장이완의 효과가 운동에 있다면 트레이드밀 위에서 10분간의 운동을 통하여 긴장이완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긴장이완이 試合에 몰두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림 그리기 혹은 여타의 놀이 활동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規則的인 운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전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현재의 학교 체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循環運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느낀다. 왜냐하면 근래 運動生理學 분야에서의 연구는 「인터벌 訓練方法」이 운동의 목표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든 競技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든 에너지 體制를 향상시키는 最上의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벌 訓練方法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즉, 운동 후에 따르는 피로의 정도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보다는 간헐적으로 할 때 적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休息時間은 ATP-PC 體制의 보충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보충은 젖산(LA) 體制를 덜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젖산 누적을 지연시킴으로써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젖산 누적의 지연 때문에 생기는 脫疲勞感, 혹은 최소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疲勞感은 훈련과정에서 수행하는 운동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잇점을 가진다.

학교 체육의 내용 가운데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견은 전통적인 保健體操는 그 시행에 별 가치가 없으며 폐기해도 좋을 것이라는 점이다. 보건 체조는 健康增進 또는 競技力向上 어느 쪽에도 공헌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조는 인터벌 訓練 프로그램의 準備運動 단계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健康增進이든 競技力 향상이든 체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의도한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신체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학교 체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에 대한 참여를 動機化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規則的으로 운동에 참여케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는 초기 발달 단계 중 강압적으로 시킨 운동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때 언제든지 참여하는 行動性向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린아이에게 운동을 강요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早期에 형성된 身體活動 樣態는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Ⅲ

체육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말은 '競爭的인 스포오츠는 人生을 살아가는 가장 基本的인 公式을 제공한다' '신체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훌륭한 스포오츠맨쉽을 배운다' 등일 것이다.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스포오츠맨쉽에 관해 논의해 왔으며, 경기장에서 스포츠맨쉽에 일치하지 않는 行動을 흔히 목격하고 있다. 학교 체육은 스포오츠맨쉽을 길러 주는가? 또는 학교 체육은 바람직한 態度, 價値를 형성하는데 공헌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신체 활동이 가치, 태도, 성격 개발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연구들의 결론이 統計的인 意義度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는 할지라도 면밀한 檢討는 연구 결과의 實際的 意義에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보고된 相關係數는 거친 豫言을 위해서도 충분하지 못한 50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意義있는 t, F 値를 보고하고 있으나 平均値간의 差는 거의 무의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포츠맨쉽과 관련하여 필자는 Havinghurst 와 Peck (1964)에 의해 보고된 「성격·가치·태도는 10세 이전에 형성되며 이 時點 부터는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들의 결론은 교사와 체육 프로그램은 기대한 만큼 態度, 價値變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교사나 체육 프로그램이 태도나 가치 변화를 위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問題는 태도나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時間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實際 活動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相互作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체육이나 스포오츠가 다양한 역할을 가행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社會化 過程 속에는 교사와 학생간에 意思表現的인 관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표현적 관계는 학교 체육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교사가 체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대부분 運動技能, 體力의 개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주일에 2시간의 體育時間으로는 소위 스포오츠맨쉽을 길러주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될 성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정된 시간량과 학급당 학생수는 학생들에게 스포오츠맨쉽을 길러줄 수 있는 環境形成에 역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고교 학생들로 부터 발견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그들이 과거의 체육 시간에서 충족하지 못한 未成就感이 욕구불만으로 응집되어 체육을 기피하는 回避行動으로 발전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연구 결과는 필자로 하여금 競爭的 스포오츠에 참여함으로써 성격·태도·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信念에 불과하며 우리가 바라는 생각일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만일 특수한 競技狀況에서 훌륭한 스포오츠맨쉽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定義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目標를 가르친다면 위의 생각은 좀더 실현성 있는 사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만일 태도, 가치의 변화가 體育이나 運動을 통해 온다면, 그러한 변화는 체육 교사나 코우치가 운동과 관련된 環境에서 태도, 가치의 특성을 어느 정도 예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結

현대의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의 推進力은 여러 가지 다른 根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원천은 敎育分野이다. 우리는 早期敎育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점증된 관심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동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체육이 공헌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關心을 보여 왔다.

이제 체육 교육의 目標達成과 관련하여 체육 교사는 교사로서, 코우치로서 그들의 전통적 역할을 再評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 구성에서 適切性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체육 교사는 체육 프로그램 내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再定義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 체육이 中核敎科 혹은 必須敎科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체육 교사는 「必須體育」이 무엇인가를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육에 대한 새로운 定義이다. 학교 체육은 그 내용을 人間動作의 관점에서 再組織할 필요가 있다. 체육은 현대 생활에서 요구되는 인간 동작의 藝術과 科學을 연구하는 교과 과정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변화하고 있는 인간관·사회관·교육관 속에서 체육이 傳統을 고수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 교과서를 기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 국정교과서 3질
○ 황 범준(서울시 중구 단교동 182—3) : 우리 나라의 생활(단기 4282)
○ 김 학규(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3동) : 보통학교 교과서 卷三(大正十三年) 외 24권

自律化와 學生指導

金 炳 聲
(教育政策研究 3 室長)

학생의 머리 및 교복의 自律化 施策이 발표된 후 매스콤이나 社會 一般에서는 학생 지도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지난 여름 방학이 중·고 학생들의 두발 자율화가 制度化된 후 첫 방학이었기 때문에 교사, 부모, 사회인 모두가 예상되는 학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지난 여름 방학에 발생한 학생 문제는 작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문교 당국이나 학교 자체의 事前 教育과 지도 방침, 청소년 유관 기관의 학생 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學父母의 자녀 동반 여행 등이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러나 방학 중의 학생 지도 방침은 自律化에 따른 학생 지도의 제한된 국면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학생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빙산의 一角에 지나지 않으며, 학생 문제의 빈도와 深度에 있어서 보다 심각하고 많은 문제가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화에 따른 학생 지도 對策을 논할 필요를 느끼는 바이다.

정부의 자율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자율 의식 高揚에 있는 것이다. 학생 문제는 두발·복장의 자율화가 행해지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 또 학생수의 자연 증가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자율화 시책에 便乘하여 학생 문제가 증가되리라는 점에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학생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學生 指導 對策을 학생·가정·사회적 교육 내지 善導的 役割을 중심으로 수립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학생 지도의 效律的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社會化, 사회의 學校化, 그리고 父母의 教師化를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몇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I

社會化란 간단히 말해서 社會 一般에게 용납되고 인정되는 行動樣式, 生活態度, 그리고 價値規範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뜻한다. 학교의 社會化란 學校社會의 구성원인 교장, 교사, 학생의 균형된 社會化를 의미하며 學校組織 內의 규범, 運營方式, 實踐過程 등에 있어서도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어야 함을 뜻한다.

교복, 두발의 자율화는 開放社會를 지향하는 민주 시민 意識이나 秩序에 기본하여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장, 교사의 구태의연한 지도 방침, 規制, 指示, 統制 등 從屬關係로 인정되어 왔던 교사의 學生觀, 또 지도 자세의 硬直性 등은 학생의 자율 의식 고양

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한편 학교 사회에서 학생에게 규칙, 규범의 예속성을 강조하는 것도 自律性보다는 他律性을 기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의 자율화 기본 이념은 개인의 외모(personal appearance), 표현의 자유(expression), 그리고 학생 활동(student activty)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기의 外貌를 자신의 개성에 맞추어 가꾸고 다듬으며, 표현의 자율은 內的인 心性 혹은 심미감을 言語的 形式, 또는 의복의 색깔, 디자인, 그리고 기타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 행동의 자율은 개인적·집단적인 참여 활동, 학생의 自治的 集團 運營의 기회나 의사 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화의 고취를 위한 학생 지도는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을 스스로 規律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性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학생의 自律的 行動 및 意識高揚의 기회를 위하여 學校單位로 교사·학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 의사 전달을 위한 制度的 通路를 만들어 주고 학생의 건의나 학생 활동의 토의·결정을 학생 지도에 반영하게 한다.

다음으로 학생의 課外活動의 活性化를 들 수 있다. 잘못 社會化된 陰性 組織을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각종 학생 서클 활동을 陽性化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보다 다양화를 도모하여 자율적인 집단 활동의 기회를 확충해 주어야 한다.

Ⅱ

自律化에 따른 학생 지도 대책의 또 하나의 방향은 사회의 學校化 운동이다. 사회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이른바 성인 교육, 지역 사회 개발, 각종 기관·조직 내의 自體 硏修敎育, 새마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금년에는 平生 敎育의 이념하에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은 물론 사회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領域과 對象, 그리고 내용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한편 학생의 두발 자율화 시책이 시행되면서 부터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사회·교육적 책임과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사회의 교육적 기능의 未備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즉, 유흥업소의 무책임한 상업 행위, 학생에 대한 사회인의 傍觀이나 무관심, 그리고 매스컴의 非敎育的 효과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價値觀의 蔓延이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크게 지적되는 문제이다. 즉, 물질 만능 주의, 刹那的, 쾌락적 가치 추구, 그리고 便法主義的 생활 태도의 성행 등이다.

위와 같은 사회의 비교육적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學生 文化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사회 교육적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매스컴의 敎育 機能 强化를 위한 대책이다. 放送 프로그램 중에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방송 프로램이 매우 부족하다. 근래에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의 비행이 증가되는 바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할 수 있는 청소년 선도 스팟트 프로그램을 制作·放映하는 방법이다. 또 청소년의 신경을 자극하는 成人用 오락 프로그램을 줄이고, 청소년 음악제·토론회·좌담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노력이나 교육 방송을 통한 학생의 취미·오락·性敎育 프로그램 등을 방영하여 학생 생활 지도를 돕는 일이다.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책으로는 성인용과 미성년용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외국과 같이, 영화에 「未成年者 출입 불가」, 「父母 同伴 관람가」, 「누구나 관람 가」 등을 영화 제작시 그리고 포스터에 명시해 주는 방법이다.

두째, 사회의 非敎育的 환경 정비의 과제이다. 두발 자율화 이후 학생의 유흥업소 출입이 전에 비하여 용이해 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접객업소 영업자의 영업 위주의 商行爲가 더욱 학생 문제를 誘因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생의 유흥·숙박업소 출입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위반시 영업자에게 엄중 처벌할 수 있는 法的 조치를 강력히 뒷바침 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을 단

속한 것에 대한 褒賞制의 실시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범죄·비행 적발자에게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는 變態 營業所, 무허가 업소 적발자에게도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褒賞金 支給이나 직급 승진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육적 환경 정비를 위하여 문교부, 내무부, 보사부, 문공부 등은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생 지도를 위한 肯定的인 대책의 하나는 靑少年 團體의 活性化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投資를 유도하여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靑少年會館을 설립하는 일, 기존 새마을 회관의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로 하는 일, 그리고 청소년 연맹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指導者 자질 향상 硏修 體制를 강화하는 것이다.

Ⅲ

마지막으로 父母의 敎師化는 가정에서 자녀의 自律性 교육을 위하여 부모가 교사의 役割을 분담하고, 회사나 단체, 매스컴을 통하여 父母 敎育을 강화하는 대책이다. Neil이 지적한 '문제 아동은 없다. 다만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막중함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非人間化 문제, 가치관의 혼란 등은 부모의 態度나 思考에서 연유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自律化를 支援·啓導하는 부모의 역할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율화는 학생 행동의 자유 방임이 아니라 학생 의식의 자율성을 높여서 스스로 자기 행동을 統制·調整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 부모는 부모대로의 직업적·社會的 活動에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나름의 생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문제는 학교나 교사에게 전담시켜 책임을 가정 밖으로 위임시키려는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 진학에 대한 敎育熱은 세계에 뒤지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敎育役割은 학교나 학교 교사에게 떠맡기는 무책임한 부모도 세계에서 보기 드물 것이다. 주말이나 휴일, 또는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자녀들과 함께 등산, 야외 캠프, 청소년 훈련장 등을 찾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계획·실천·터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두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過剩 期待, 과잉 보호에 따른 虛禮的 경쟁심의 유발을 들 수 있다. 우리 부모는 남을 잘 의식하고 넘나보려고 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분수에 맞추어서 合理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길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과 같이」「남에게 지지 않게」「어떤 수단을 써서라도」하는 식으로 過熱 競爭(입시, 과외 등)을 유발시킴으로 그 후유증으로 자녀의 열등 의식, 좌절감, 敗北感 등을 낳게 하는 수가 많다. 그렇지 않으리라 예상하지만 교복 자율화 이후에 여학생들의 옷차림 경쟁도 당분간은 부모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색깔, 디자인, 가격 등도 학생의 분수와 수준에 맞게 착용하도록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와 학교 방침에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세째, 자녀에게 투철한 父母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생 문제는 자녀에 대한 沒理解, 對話 不足, 지나친 간섭, 家庭 不和 등에서 야기된다고 한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旣成世代와의 갈등이 아니라 친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弱化이다. 자율화에 따라 학생들이 무분별한 구미의 학생 풍조를 받아 들인다면 부모관의 희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정에서 家訓, 자체 생활 습관, 인격 존중의 자녀관에 대한 많은 노력과 부모의 교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民族 主體性 教育의 새로운 要請

金 容 雲
(漢陽大學校 教授)

I

민족은 단위 지역에서의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고유의 문화 의식을 형성시켜 온 하나의 생명체이다. 우리의 미래에 이상을 투영시키고자 한다면 오랜 세월, 연속적으로 형성해 온 한국인 고유의 이 문화 감각의 본질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이상 추구는 알맹이 없는 구호적인 성격의 것이 되고, 주체적 교육에의 바램은 아무런 현실적인 힘을 못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문화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의 종교·과학·예술·역사·문학·수학 등 모든 정신적 활동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결여된 상태라면 문화라고는 할 수 없다. K. Jaspers는 인류사에서 「樞軸時代」를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B.C 8세기에서 B.C 3, 4세기에 걸치는 시기이며, 이때 희랍, 인도, 중국, 이스라엘 등지에서 시간의 축에 관해서 平行的으로 체계적인 사상이 처음으로 형성된 인류의 정신적 혁명기였다.

희랍에서는 탈레스를 비롯 피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소위 희랍 七賢으로 상징되는 위대한 사상가가 배출됐고, 기적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인도는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六師外道의 철학과 석가모니의 불교가 형성되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공자, 노자, 장자, 맹자……등 諸子百家의 사상이 나온 「百花齊花」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원시 헤브라이 사상에서 아모스, 이사야, 엘레미야, 에기엘 등의 훌륭한 예언자들이 활약했으며, 구약의 神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형성했다.

이와 같이 인류 문화는 지역마다 각각 독자의 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속에서 이상 사회를 꿈꾸어 왔다. 그러나 이들 문화의 기본이 되는 가치 감각은 각기 다르다. 각 문화권마다 철학·역사·과학 등을 가졌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자 모두 개성적이고 때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다.

희랍의 존재론적 철학, 헤로도토스에 상징되는 역사학 또는 內在觀으로 일관되는 과학의 실체는 春秋史觀과 실천적인 도덕을 표방하는 孔

孟 철학, 그리고 음향오행의 가설에 근거를 두는 과학 내용과는 판이한 것이다. 이 사실은 이질적인 문화가 전 인류의 문화적 재산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정신 활동의 밑받침이 되는 민족 특유의 문화 감각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은 분명히 중국 문화권에 속한다. 중국 대륙에 이어져 있는 우리 국토에는 그들과 공통되는 자연 조건이 많고, 일부 생활 의식은 일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세련된 사상이 설득력을 가지고 수용된 것은 사실이며, 한 때는 중국 고전 정신을 國是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적이라고나 할 수 있는 독자의 문화 감각으로 그들 문화를 소화하고 그것을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으로 발전시켜 왔다. 한국인은 겉보기와는 달리 독특한 역사 체험 속에 고유의 가치 의식을 형성해 온 것이다. 그것은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생활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다.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들 가치관을 긍정하고 그 위에 시대적으로 확고한 의의를 갖는 민족 문화를 일으켜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온 겨레의 공통의 바램이다.

Ⅱ

서구의 여러 나라는 근세 이후 과학 혁명을 경험했고, 그에 힘입어 강력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로 거대한 자본을 구축하면서 그 막대한 에너지에 힘입어 세계를 지배해 왔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물리적인 압력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하고, 우선 당장의 목표는 그들과 맞먹을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 뜻으로 「조국의 근대화」라는 슬로우건의 참뜻은 각박한 국제 사회에서의 한 성원으로서 생존을 유지하려는 최소의 소망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리적인 힘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생존 경쟁이 심한 국제 사회에서 항상 남에게 예속되기 마련이다. 서구를 뒤따라야 하는 일이 선진국 대열에 끼어드는 첫 걸음이며, 그것이 국가·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는 그처럼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던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서구 지성의 입을 통해 나와 있다. 서구의 정신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규정 짓는 고전적 견해가 있는데 이 정신 풍토에서 그들의 힘의 원천을 찾는 것이다. 프랑스의 주지주의(主知主義) 시인 P. 발레리는 서구인이 현대 과학을 성취한 이유를 유크리트 기하학의 정신에 두었고, 또 M. 웨버는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발달 이유로서 그들의 청교도적인 정신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가 근대화를 국가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 이들 정신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신 풍토에는 유크리트에 상징되는 희랍적인 합리주의 정신, 또 신과 1대 1로 맞서는 기독교적인 신앙도 없다. 따라서 한국인의 근대화 작업은 서구적인 것이 아닌 우리 특유의 정신 풍토를 깊이 이해하고 이 바탕 위에서 그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 목표가 주체적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은 아닌 것처럼 근대적 사회를 건설하는 길도 서구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정신 풍토 속에서 다져진 문화 감각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결코 헛된 자부심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본을 예로 들더라도 그들은 특유의 군사적 성향과 상업적인 현실 감각으로 효율과 현실을 우선 시키면서 산업 사회를 이루었고, 근대화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인에게는 서구적인 사상은 없었고, 특히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불모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문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근대화에는 일단 성공한 셈이다.

Ⅲ

민족의 이상은 근대화 또는 서구화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서구화 또는 근대화는 생물적으로 민족을 생존시키는 한낱 수단에 불과하고 한국 민족의 이상은 그것을 넘어선 일에 있다. 건전

한 민족 문화는 아무리 개성적이라 해도 전 인류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풍요한 정신성을 발휘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민족적 감상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주체적 의식과 민족 교육의 과제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우리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효율이 높은 약일수록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되는 수가 있듯 오늘의 번영을 일으킨 정신적 요소가 곧 그대로 내일의 발전을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서구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희랍 이래 이어져 왔던 기하학 정신은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퇴폐적인 풍조를 몰아 오고 있다.

'외적인 대상에 적용함으로서 풍요한 물질 생활을 가져다 준 이 정신은 이제 그것을 인간이나 신의 문제에 까지 적용시킴으로써 문명에 병의 씨를 뿌리게 되었다. 이 일이 서구의 몰락을 뜻한다'고 한 슈펭글러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 서구의 정신적 상황은 퇴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들 자신의 새로운 활로를 동양적인 것에서 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청교도적 정신은 인간이 신과 일대 일로 마주섬으로써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조를 가져왔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으나 극에 이르면 물질과 효능만을 우선케 하는 풍조를 낳게 된다.

정신성보다는 향락, 그리고 극도로 전문화된 인간형을 형성할 것이며, 여기서도 문명은 퇴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M. 웨버 자신의 견해이다. 융성한 물질 문명을 가져다 준 서구의 정신은 오히려 그들을 몰락케 한다는 이들 경고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일본은 그들 특유의 군사적인 경쟁 심리와 상업적인 현실 감각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정신적인 뒷받침 없는 그들의 앞길이 비관적임은 자명하다. 극도의 예리한 현실 감각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마저 못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Ⅳ

한국인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신성에 두고 항시 이상을 앞세워 왔다. 명분을 국시로 삼았기에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적용할 수 없어 좌절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있다.

강인한 생명력은 그 명분 의식과 아울러 우리의 고유한 민족성의 특징이다. 이러한 민족 의식은 汎 인류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 풍조 속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인의 국제적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고, 한국인은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강한 생활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것은 오랜 시련의 역사 속에 닫혀져 있던 한국인의 생명력의 발로이기도 한 것이다. 이 생명력과 이상 추구 정신은 적극 승화되어 가야 할 것이다. 민족의 미래에 촛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과거는 물론 현재의 처지마저도 큰 뜻을 갖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들 일련의 역사와 현재의 방향이 미래에 주는 의미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사고는 오직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를 향한 의지로서 발휘될 것이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족에 대한 사랑일 것이고, 곧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의 자세일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의 의의를 미래에서 찾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과 맹목적인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쇼비니즘이 애국은 아니다. 과거를 일부러 꾸미는 일 따위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왜곡의 역사」는 남에게는 물론 나 자신을 해치는 폭력이 된다.

Ⅴ

주체성은 항상 역사의 흐름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전개한다는 결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반도라는 지리적인 조건을 지니면서 일제 36년을 제외하고는 타민족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긴 일이 없는, 기적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거의 3년에 한 번의 비율로 외침을 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유의 언어와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투와 전쟁은 엄연히 다르다. 전투는 국부적

인 물리적 충동을 뜻하지만, 전쟁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다. 한 민족은 전투에 지는 일이 많았으나 결국 전쟁에 이겼기에 민족은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부끄럽기는 커녕 오히려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의병이 없었고, 3·1운동·광주 학생 운동·광복군의 운동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제 2 차 세계 대전을 종결시킨 연합국의 물리적인 힘은 막강했으나 그 힘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민의 주체적인 행위에서 나왔다. 앞으로의 민족 통일도 나라의 번영도 남 아닌 우리의 힘으로써 성취해 나가야만 되는 것은 당위의 문제이다. 그 의지를 기르는 일이 또한 주체적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Ⅵ

아무리 보잘것 없는 민족 특유의 과학적 체계일지라도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 지식을 제공해 왔다는 뜻에서 토착 과학(Ethno-science)에 관해서는 우열을 따질 수 없다. 이를테면 어느 부모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사랑의 양을 남들과 견주어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와도 같다.

서구의 과학·기술의 수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성취해 낸 과학 기술에 대한 애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한 뜻에서 근대화 과정에서의 문화 활동은 서구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야 한다.

전통 문화의 존재는 민족 공통의 정신적인 귀일점이라는 뜻에서 우리들에게 감상적 감흥을 일으킨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문화가 汎 세계적인 것으로 승화되어 전 인류의 문화 재산으로 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에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의 예술, 또는 과학이나 수학까지도 한낱 골동 취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고 방식과 방법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일반사만은 아니며 오히려 문화사나 과학적인 것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Ⅶ

앞서 말한 것처럼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었다. 오르는 방법도 각자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서 계곡으로 오르는 법, 능선을 타는 법, 암벽을 타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류의 문화를 주도하는 일은 큰 산을 오르는 것이나 다름 없는 난문제이다. 그러나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올라야만 한다. 그 길을 우리는 가치 의식이 긍정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인류 문화는 보편적인 가치를 희구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결코 均質的이고 평등적인 것은 아닌, 각 민족의 개성 있는 문화가 얽혀 자아내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체 교육은 민족의 전통 위에 그 미래를 긍정하고 세계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主體性 確立을 위한 國史認識의 새 方向

李 鉉 淙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

I

우리 민족의 역사성 속에서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 받아 주체적 자주 국민의 자질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사 교육은, 오늘날 국민의 단결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특수성과 결부되어 국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국사 교육의 목적에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또한 태도 또는 사고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각급 학교에서의 국사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와 함께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면서 지도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II

국민의 긍지를 기르기 위해서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는 국사가 최고이다.[1]

우리 나라가 국가적 위기에 처하였을 때 국가 의식의 고조와 함께 국사의 편찬 서술이 진행되었고, 조선 후기 자주 의식에 입각한 실학자들이 국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었으며, 韓末에 외세의 침투에 대항하여, 근대적 교육의 추진 과정에서 국사 교육이 민족 의식을 높이고, 자아의 재발견을 이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국가적·사회적 요청과 관계 깊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 양성에 있어서 국사는 커다란 효용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사 교육의 목표는 새 가치관의 형성이며, 특히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데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국사 교육의 효용성인 정치 교육, 가치 교육과 직결되는 것이다.

III

국사 교육에서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인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의 각 민족의 자주적인 의식이다. 그것은 전통과 문화를 지닌 각 민족이 각각 공동적으로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할 자율적 의식인 것이다.[2] 그것은 신체적 자아로서의 주관이 아니오, 단순이 개별 인간의 심리적인 자아로서의 주관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 고금의 전 인류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상정된 일반 의식으로서의 주관도 아닌 것이다.

1) 康宇哲, "歷史의 敎育" 1974, p. 27.
2) 崔載喜, "主體意識과 歷史敎育" 歷史敎育 14집, 1971년, p. 144.

국사 교육에서의 주체성 (주체 의식)은 진리를 인식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객관에 대립되는 주관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객관에 대립되는 주관이란 인식론적인 용어이다. 민족적인 주체성은 객관에 靜觀的으로 대립해 있는 주관이 아니라 객체들을 생산하면서 그것을 포섭하고 객체들을 넘어서는 발전적인 것이오, 생명적인 것이다.[3]

주체성은 주체에서 나오는 생명력의 함수이다. 하나의 민족을 주체로 하는 민족적 주체성은 그 민족을 존속시켜 온 영속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륙의 동북방에 위치하여 한족 및 북방 민족과의 접촉 투쟁 과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인의 혈연면이나 언어·문학·생활 풍속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전통적 가치의 Energy를 찾아내는 것은 주체성을 찾고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4]

오늘날 한국이 요청하는 바람직한 인간이란 확고한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즉, 자주성과 통일성(사상과 생활에 있어서)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또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변화에 능동적 적응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양성하는 면에서 주체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주체성은 자아 의식이다. 그것이 집단 의식 내지 민족·국가 의식으로 승화될 때 주체성으로 중요시 된다.

◆ 주체성은 소속 의식이다. 즉,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오, 한국인과 동일한 역사와 전통과 선조와 문화적·생활적 유산과 풍토를 이어 받았다는 의식이다.

◆ 주체성은 동일체 의식이다. 공통 의식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자존심과 주권이 타에게 침해될 때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 보전하려는 의지이다.

◆ 주체성은 자립성이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력에 의하여 지키고 개척하려는 정신이고, 남이 한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외래의 것이라 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정신이며, 남이 강요한다고 고분고분 수락하지 않고, 남이 위협한다고 쉽사리 굴복하지 않는 기상인 것이다.

결국, 주체성은 자아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이며, 소속 동일체 의식으로서 한국 민족이라는 의식과 주권의 존중과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와 봉사·협동 정신을 갖게 하는 정신이며, 민족 의식으로서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민족사에 대한 자랑을 갖고 국가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는 정신이며, 문화 의식으로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민족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정신이며, 역사 의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국가·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정신인 것이다.

주체성 교육은 우리 국사의 본 모습을 되찾아 젊은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자부심과 용기의 원천을 심어주고 새 역사에 대한 사명을 스스로 발견하여 힘차게 살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오, 훌륭한 사회, 자랑스러운 조국인 복지 국가의 미래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겠다는 애국심을 배양하는 것이다.[6]

이러한 주체성 교육을 통하여 정치적·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번영을 이룩하고, 국민적 단결을 도모하여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 정신과 견실한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다.

Ⅳ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해 국사 교육을 통한 주체성 확립은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을 갖게 하고 민족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정신 자세의 확립과 같은 것이다.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민족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3) 崔載喜, 전게서, p. 145.
4) 康宇哲, 전게서, p. 241.
5) 吳天錫, 「發展韓國의 敎育理念 探究」, 1977년, p. 227.
6) 柳達永, 「歷史民族과 主體性 敎育」, 敎育硏究 1977년 4월, p. 33.

일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역사가 항상 사화, 당파 싸움, 그리고 침략을 당하는 사실로 점철되고 결국 나라를 잃을 수 밖에 없었다고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 왔다. 이것은 일제 침략 시기에 植民史觀에 의해 왜곡 굴절되어 변혁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의 머리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나라 역사를 얕보는 편견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강행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뿌려 놓은 식민사관의 폐해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신적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他律性論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사 발전의 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인은 항상 의타적이고 자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타국의 속국이 되고 지배를 받아 왔으므로 일본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한국인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능동적인 발전의 노력을 숨겨 버렸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停滯性論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는 뒤떨어지고 또한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들의 침략을 은폐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소위 식민사관에 바탕한 역사 교육의 폐단이 남아 있는 한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V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즉, 우리가 국사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되는 주체성은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진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역사는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 올바르게 똑똑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역사에서의 수난이나 치욕은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같은 불행은 감추고 없었던 것으로 하여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청소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와 같은 불행이 생기게 된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고 밖에서도 찾아 철저하게 인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침략하는 쪽도 물론 비판 받아야 하나 침략을 받은 쪽의 내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서 역사의 변천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 발전하여 온 원동력이 무엇이며 그같은 원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發源的인 힘의 역량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민족의 내부에서 찾아 보아야 한다.

우리 민족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량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민족의 전통으로 나타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인 자주성을 드높인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깨닫고 이같은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은 주변 민족에 대해서 언제나 주체성을 갖고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위에서 다른 민족을 보아 왔다. 때로는 華夷觀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주변 민족의 생성 소멸이 되풀이 되어가는 속에서 시대에 따라 국명은 바뀌었으면서도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전개하여 왔다.

언제나 대상 국가나 민족에 따라 차이를 두면서 전개시키고 대응하여 왔다. 그런 속에서 민족 문화를 창조하며 특색있는 생활을 이룩하여 왔고, 그와 같은 문화 창조의 능력과 저력이 역사 의식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異民族의 침략에 항쟁할 수 있었던 것이며, 외세에 동화되지 않고 줄기차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권이 침탈되었을 때 독립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그로 인해 정신적 기반이 강하게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종래 우리 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민족의 내재적인 발전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은연중에 식민사관의 타율성에 빠져 있었고, 또는 그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바르게 이해하는 역사 인식 태도가 미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침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그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적 전통을 지켰다는 면으로는 이해의 각도가 이루

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 문화의 영향이 강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 문화 활동과 창조적인 노력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왔다.

당파 싸움이 진행되어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에 크게 폐단이 되었다는 면은 잘 알고 있으나, 당파의 정치·사회적 성격이나, 그 당파가 조선 시대 전 시대가 아니오, 또한 우리 민족 모두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 양반 계층의 이해에 관련되었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인색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근대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이나 내재적인 발전 과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제의 침략 과정만을 내세워, 스스로 민족사를 일제의 침략사로 이해하려 하고 있는 경향도 아직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그들의 침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나 근대적 문물에 대해 마치 일본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일제의 침략 과정이오,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의 한 양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수 남아 있다.

VI

우리 민족사의 저변에 連綿히 흐르는 정신을 자주·창조·개혁 정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사의 추진력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주적인 민족적 저력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사의 흐름을 그 내적인 발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인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단순히 아는 것보다는 역사를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시대에 나타 났던 변화의 부분을 민족 내부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성장 과정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것이 바로 주체성의 확립 과정인 것이다.

異民族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침략의 관계로가 아니라 항쟁하여 민족적 전통을 유지하여 온 것이며, 그 항쟁의 정신적 바탕이 문화 민족으로서 또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긍지였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끄럼보다는 굳건한 민족의 자주성과 조상의 민족 전통을 수호하려는 정신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는 주체적 민족 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 속히 우리 의식 어느 구석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과거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역사 인식의 태도를 버리고 민족사의 발전을 민족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내부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온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인식 태도를 갖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역사 속에 계속 되어온 자주·창조·개혁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어 주체성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를 다하려는 국민 정신이 계발되고, 그리하여 숨겨져 빛을 기대하던 우리의 민족사가 광채를 발하고 크게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國際理解 教育의 理想과 民族 主體性 教育

李 存 熙
(서울 市立大學 教授)

I

세계 인류는 오늘날 하나의 생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경제와 문화·교육 등은 하나로 연결되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공해 문제·인구 문제·식량 문제·평화 문제 등은 몇몇 후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전 세계 인류의 공통의 과제이고 절실한 현실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서로 돕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세계 각국은 각기 자국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려 하고 있다. 타국에 대한 이해나 국제 질서의 확립을 위하려는 자세는 극히 많지 않은 것 같다. 즉, 올바른 국제 질서의 확립이란 형이상학적인 이상론으로 흐르고, 현실적으로 국제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어린 형제 간에도 음식을 놓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인다면 血緣共同體로서의 가정 윤리 뿐 아니라 가정이 갖는 본래의 기능도 파괴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논리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인의 공통 윤리와 국가간의 이해·협조 없이는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공동의 과제 해결이란 어렵게 되고, 인류 문화의 향상, 생활의 증진, 평화 정착 등은 기대하기 힘든다. 누가 세계 인류 공동의 문제와 미래를 우려하면서 나의 일, 내 조국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사명감을 다할 것인가.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장래를 낙관하지 않고 비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급변해 가는 과학 문명 속에서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대로 안이한 마음만 먹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도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궁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인가 먼 장래를 조망하면서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곧 나의 일이고 후손을 위한 의무 이행인 것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내지 전쟁은 오늘을 망각하고 내일을 생각치 않으면서 목전의 이익을 위한 파렴치한 행위인지 모른다. 좀더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라면,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국제 질서를 혼탁시키면서까지 힘을 과시하지 아니할 것이다.

1945년, 런던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유네스코 헌장을 작성하고 아울러 '국제 이해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을 협의의 기본 과제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미

구에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소망에서였으리라. 인간 서로를 존중하고 편견 없이 다른 민족을 대할 때 결국 우리도 타민족으로부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민족간, 국가간에는 별 마찰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베이컨(Bacon)은 「4大偶像(idola)」이라 하여 그 중 種族偶像(idola tribus)에 빠져 들기 쉬운 편견을 제거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 비코(Vico)는 역사가의 5가지 편견을 지적하면서 自國史의 장점이나 아름다운 점만을 강조하고 약점을 되도록 피하게 되기 쉬우니 각별히 유념할 것을 꼬집어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랑케(Ranke)는 '위대한 국민은 두 가지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국가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운명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자국을 위한 민족적·국가적인 노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민적 노력이라는 양자를 포함시키는 말로서, 국가적인 이익 추구에 못지 않게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아울러 강조한 표현이다. 지나치게 국가 우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대한 경고라 하겠다.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데는 단순히 정치적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다. 정의, 자유, 평화라는 오늘날 인류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첩경은 자라나는 2세들의 의식 개혁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즉, 교육에 거는 기대가 현실 정치보다는 크다는 것이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 전쟁과 평화의 문제,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세계상 등을 자라나는 2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결국 국제 협조의 정신을 배양하여 국제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질 문화의 상호 이해로 민족·국가 간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세계의 일체화를 꾀하여야 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때 외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겠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도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 이해를 통한 세계 인류 전체의 결합과 연대 의식을 갖고 세계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겠다.

Sulwyn Lewis는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1964)에서 인류의 결합과 연대 의식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로 7가지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방해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국제 이해를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며, 세계는 평화롭게 잘 살아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 방해 요인 7가지는 ① 인종 차별(racial discrimination) ② 종교적 편견(religious bigotry) ③ 생활 수준의 격차(differences of standard of living) ④ 국가주의(nationalism) ⑤ 이데올로기적 대립(ideological differences) ⑥ 언어적 장애(differences of language) ⑦ 무관심(indifference) 등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해가 상반되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사례는 그 분쟁의 근본 요인이 S. Lewis가 지적한 7가지 범주 내에 들어 있는지 모른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싸움은 종교 문제가 바탕이 되어 생존권 수호를 위한 전쟁이라 볼 수 있으며, 아프리카·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인종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선진국과 후진국간, 또는 백인 대 흑인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내셔널리즘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자유·공산 진영 사이에 나타나는 제반 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영원한 평화를 유지키 위해서는 올바른 국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국제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선행되어 져야 함을 통감하게 되었다. 오늘과 같이 「국제 이해 교육」이란 헛된 구호에 그치고 현실적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만 계속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나 국민들에게는 전쟁의 포화가 끊일 사이가 없을 것이며, 지구와 인류의 문명은 자멸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의 전 인류가 공동 합심하여 국제 이해를 위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그리고 교육적인 노력을 서둘러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이해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이상

요하다. 국제 이해의 필요성, 국제 이해의 방법 등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각오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제 이해 교육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첫째, 국제 이해를 위한 정신적인 각오가 필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두째, 국제 이해 교육은 초국가적, 초민족적인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사회는 본래 결합하는 각 주권 국가의 모임이므로 국제주의·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항시 자국의 현실과 유리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국제 이해는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세째,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한 각국간의 통일된 교육 과정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현재 각국에서는 국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극히 형식적·피상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다. 몇 나라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면 그 실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 상황에 따라 적당히 행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아예 자국의 현실만을 중시하고 국제 이해 교육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상적인 국제 이해는 기대하기 힘들다. 각 국가에서 통일된 국제 이해 교육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국제 이해의 학습 원리, 실천 계획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 효과는 커지리라 생각된다.

네째, 효과적인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이나 異民族의 異質文化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진술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급속도로 변모해 가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국제화의 빠른 템포 속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이질 문명과의 접촉 과정에서 생활 양상의 차이, 사고 방식의 차이 때문에 겪는 가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가치 선택에 적지 않은 고민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신속히 그리고 알맞게 적응키 위한 국제 이해 교육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질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文化體質을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문화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끝으로 국제 이해 교육은 자국 국민과 가장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나 국민의 이해부터 우선해야 한다. 예컨대 오늘날 한국민은 미국을 위시한 영·일·독·불, 나아가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점적인 국제 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클 것이다. 아울러 지정학적인 위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東北亞에 위치한 우리 나라는 마땅히 인접국에 보다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살아온 문화 배경은 다분히 동양 문화권이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이곳에 내려져 있고, 우리의 생활 패턴과 사고 체계는 역시 이곳의 유교적 동양 문화권 속에서 자라 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옳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Ⅱ

내셔널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Internationalism)은 대립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본래 단어가 지니는 의미도 상반된다. 이러한 대립·상반 되는 입장을 중화시켜 국가와 인류(세계)가 하나로 되고, 인터내셔널리즘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내가 존재하고 내 위치가 확고해진 연후에라야 이웃·나라·세계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개인은 그 나라의 민족 구성원이다. 대체로 국가는 민족을 단위로 하여 문화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이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나의 생활이나 나의 의식 구조는 민족을 단위로 한 문화 공동체 속에서 영위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서는 내 자신의 존재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나 민족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수적·의타적·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른지 모른다. 그러므로 주체성 없는 개인이나 국가(민족)는 그 장래가 지

극히 암담하기만 한 것이다.

민족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주체성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성 있는 개인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체성 있는 개인이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결국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민족과 조국에 대하여 공헌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주체성 있는 개인이다. 민족 주체성 교육이란 주체성 있는 개인의 양성을 의미한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은 독일의 피히테는 조국 독일을 위기로 부터 구출하여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건전한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의 독립을 되찾는 길도 오직 교육 뿐이며, 그 밖에는 어떤 수단도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였고, 한편, 외세의 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던 덴마아크의 경우에도 당시 그 나라의 애국자요 교육자였던 그룬트비히가 「교육의 힘」으로 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힘이 크고 교육을 통하는 길이 국가 민족의 지상 목표를 달성하는 첩경이 됨을 뜻하는 말이었다.

민족 주체성 교육은 歷史가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역사 교육은 곧 주체성 확립을 위한 인간 교육의 핵심이 되며, 나아가 국제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 역사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들의 집단 즉,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딜타이(Dilthey)는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라고 했다. 즉,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에 의해서만이 된 참인간이 길러진다는 이뜻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을 지닌 개인 또는 민족의 양성은 역사 교육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개인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집합체로서의 민족 형성도, 물론 역사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역사 창조의 주체는 민족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객체는 국가이다. 민족과 국가는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은 인류의 생존과 평화 유지를 위하여 이바지해야 한다. 민족 주체성의 확립 없이는 민족사도 확립될 수 없는 것이며, 민족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주체적인 인간 양성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麗末 몽고 세력의 항쟁, 조선조 반란으로 인한 외적과의 투쟁,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과의 접촉에 따르는 衛正斥邪論 및 開花論, 그리고 東學運動과 3.1운동 등은 민족 주체성 교육을 위한 좋은 교수·학습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이 목표 진술, 내용 정선, 학습 방법, 평가 등으로 연결되어 목표 달성을 시도하는 것이고 보면 민족 주체성 교육을 위한 내용의 선정이 중요하다.

민족 주체성 교육은 현실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 인류 공존을 위한 국제 이해 교육도 마땅히 행하여져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이 안팎의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솔선하는 국민이 되어야 겠다. □

외국 교과서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李 亮 雨
(社會科 敎育硏究室長)

I. 序 言

1. 必要性

1965년 山本典人이 '일본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글 속에(歷史敎育 122號) 동경 사회과 어느 교사가 국민학교 3~6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상문을 싣고 있다.

> 옛날 한국은 일본의 영토였으나 전쟁에 일본이 졌기 때문에 빼앗기고 말았다. 전적으로 한국은 뻔뻔스럽다. 그리고 이제는 막 우기고 있다. 거기다가 한국인은 일본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점점 버틴다. 한국은 좋아할 나라가 아니다. 이 승만 라인을 조금만 넘으면 한국 경비병들이 와서 우리 어선을 잡아간다. 한국은 싫은 나라이다.

이 글은 왜곡된 교과서의 산물이다.

한 나라의 이미지란 그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개념을 지칭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好·不好의 감정을 포함한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한국의 이미지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접해 본 결과 그 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이미지 같은 직접적인 이미지와 Mass-com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갖게 된 이미지, 또는 그 나라 TV 속에 막연하게 비친 韓國人像, 백과사전이나 교과서를 통하여 형성되는 간접적인 이미지가 있다.

교과서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 내용을 선정하여 순서에 따라 제시한 기본적 자료로서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담긴 한 나라의 사실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다른 나라를 보는 이미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7월 초부터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계 내용이 檢定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사실이 드러나 한국 국민의 격분 속에 신문지상에 연일 그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일본측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고, 급기야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사 교육 강화 등 민족 主體性 敎育을 주장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의식도 이 기회에 국민적 단합과 국력 신장의 계기가 되어야 겠다는 방향으로 제도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 나라는 민족적 통합이란 명제와 안보, 경제 협력 등 일본과 國際理解敎育 증진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일본인의 의식 속에는 소련·中共 다음으로 厭惡와 멸시의 대상인 이웃일 뿐이다(1980. 時事通信社).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해묵은 선입견과 역사적 감정만 되새길 때 아무 이익이 될 것이 없어 보다 냉철하게 국제 사회의 비정과 민족주의적 實利를 생각하면서 전통적 善隣友好를 계속해 나가야 할 처지에 있다 하겠다.

2. 是正目的과 是正對象

1982년 1월에 정신 문화 연구원으로 부터 본원 사회과 연구실로 移管된 韓國觀 是正事業은 외국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계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검토·분석하고, 시정 내용을 현지어로 번역·작성하여 관계국에 의뢰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외국의 학생들이 올바른 한국의 이미지를 갖도록 교과서의 기초 자료를 관계국에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 시정 사업의 대상으로는

1) 외국 교과서(주로 역사·지리·사회 문화·정치 경제·지리 부도) 중에서 한국 관계 내용이 잘못 표현된 것.

2) 교과서 안의 도표·통계·사진 등에서 낡은 자료를 인용한 것이나 낙후된 한국 상황,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일방적으로 표현된 것.

3) 북한 편향으로 6.25남침 등을 왜곡되게 기술한 것 등이다.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의 목적은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외국인에게 우호적 태도를 갖도록 이미지를 전환시켜 주고, 우호적인 외국인에게는 계속 우호적 태도를 갖도록 강화 유지시켜 주며, 한국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외국인에게 우호적 태도를 갖도록 안내해 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때 그 나라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이해하고 교육 매체의 대표격인 교과서 내용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그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是正事業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외국 교과서 집필자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해 보고 이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도록 한국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여 우호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3. 推進經緯와 推進方向

韓國觀 是正事業의 시작은 1975년 2/4분기 심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 김 종필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하여 착수되었다. 이어 관계 부처 대책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문교부가 주관, 외무부는 교과서 수집, 문공부는 시정 의뢰 등으로 업무가 분담되었었다.

이 사업은 1977년 1월 14일까지 계속되다가 추진할 업무가 없어 일시 중단되었는데, 1978년 5월 중앙 정보부에서 레바논 역사 교과서에 한국 관계의 왜곡 내용이 발견되어 지속적인 실시가 요망되자 그 해 12월에 韓國觀 是正事業 推進 協議會를 설치하고 사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추진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문교부 차관
위원 국무총리실 제 1 조정관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문교부 장학실장
문공부 해외공보관장
중앙 정보부 제 5 국장
전문위원 2인(지리, 역사 담당)

1975년부터 문교부 사회과 편수관실에서 담당해 오던 이 사업은 외국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시정안 작성이 한국학 연구와 관련이 깊다고 1980년 4월 24일자로 정신 문화 연구원에 이관되었고,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는 기구 및 기능상 사업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주관 기관 조정 요청을 하여 81년 9월 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문공부가 이 일을 총괄하고 교과서·분석 정리는 한국 교육 개발원에 일임하기로 결정되어 81년 12월 23일자로 이관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 문공부 차관
위 원 문공부 해외공보관장
국무총리실 제 1 조정 담당관
안전기획부 제 3 국장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문교부 편수관리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부장
간 사 문공부 해외공보관 기획부장
서 기 문공부 해외공보관 제작과장

한국관 시정 사업의 추진 실적은 다음의 〈표-1〉, 〈표-2〉와 같다.

본원에서는 1월 초 자체 협의회를 조직하여 추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종전과 같은 문화홍보적 차원에서 단순한 교과서 내용을 일

방적·단편적으로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심층적·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조직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교육개발원의 역할은 외국 교과서를 검토하여 오류 사항을 분석·정리하여 시정 조치하는 동시에 추진 전략 방향을 건의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어 사업 계획 수립의 기본 방침으로

1) 외국 교과서 是正圈(지역, 정치 및 언어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미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아랍어권)을 설정하고 이를 확대 추진한다.

2) 외국 교과서를 수집·분석하여 시정안과 사례집을 마련하고, 한국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시정권은 한국 관계 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한다.

3) 외국 교과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4) 외국 교과서 관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한다.

Ⅱ. 日本 歷史 敎科書에 나타난 韓國의 이미지

일본 역사 속의 韓國史觀을 흔히 식민사관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이는 자주성이 없는 他律性 理論, 內在的 발전이 없는 停滯性, 문화적 독창성이 없는 從屬的인 史觀으로 그들의 통치를 합법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서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아동들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日帝의 同化政策의 잔재가 남아 한국을 독립된 나라로 보지 않고 일본의 입장에만 눈을 돌린 때문이다. 더우기 재일 교포들의 차별 대우와 소외감은 생각지 않고 시즈오카의 金嬉老 사건이나 東京 小松川의 李珍宇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獨島의 문제도 한국의 부당한 점령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그들의 확대된 厭惡를 간파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서에 왜곡된 기술 내용이 아동의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 왜곡 미화를 찾아 열거하려 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점은 그들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 저의를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특수한 관계, 그리고 일본 자체 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예컨대 군국주의 무드의 대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은 지난날 한국의 통치가 열등한 한국민을 일본인의 지위로까지 끌어 올린 은혜의 행위라고 합리화하고 있고, 한국은 일제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당파성이 강하고 독창성이 없는 민족이란 인상을 주어 과거의 잔인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왜곡이다. 그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古代史의 出發과 漢郡縣

일제의 식민사관인 他律性 理論으로 한반도에 漢郡縣 설치로부터 기술한 것은 일제 통치를 종주국의 교체로만 보게 한 의도적인 발상이다.

沙里院 역 남동쪽 2.3里 韓里에 있던 帶方郡의 중심을 한국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로까지 끌어 내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2. 古代史의 領域 縮少

고구려의 건국 발상지는 압록강 지류 渾江인데, 송화강 유역으로 기술한 것은 고구려 이전 부여가 그 곳에 있던 것을 고의로 말살함으로, 고대 국가의 형성을 늦춘 것이다.

唐代 7~8세기 Asia의 版圖中 山川 出版社에서 발해가 당의 영역으로 표기되었고, 三省堂에선 신라까지 당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도 의도적인 타율성 史觀의 작용이라 볼 수 있다.

3. 韓國文化의 東流

한국의 稻作은 청동기 시대와 일치하며, 고조선 문화의 모체가 되었는데, 마치 한사군과 관련된 듯 서술한 점, 백제의 阿直岐, 王仁 등이 應神天皇의 아들을 가르치고 일본에 한자와 유교 문화를 전해준 것이 분명한 데 「渡來人」이라고 문화 수용을 은폐한 것, 독창적인 삼국 문화를 중국 문화와 동일시하여 한국은 문화의 교량적 위치로서만 의미를 부여하여 주체성을 부정한 것 등도 식민사관에서 연유한 것들이다.

4. 任那 經營說

日本書記를 근거로, 일제의 한국 침략을 합리화한 이론인데, 대화정권이 4세기경 한반도의 任那(가야) 지방에 진출하여 2세기 동안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廣開土王碑를 조작하면서까지 이를 입증하려고 하였다.

5. 倭 寇

왜구 활동을 무역 활동으로 보고, 해적 행위를 수반적인 것으로 서술했다. 왜구 토벌로 실력을 쌓은 李成桂가 조선을 건국한 것으로 은연중 왜구 세력의 막강함을 드러냈다.

6. 壬辰倭亂

豐臣秀吉이 일본 내의 불평 세력을 소모하기 위하여 저지른 壬亂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구실뿐인 入貢 요구를 거절하여 출병했다고 糊塗했다. 임란의 종식도 한국 수군의 우위, 의병의 활동 등 우리 민족의 역량은 언급치 않고 豐臣秀吉의 사망으로만 기술했다.

7. 通信使 往來

국왕의 즉위나 德川 장군의 대가 바뀔 때마다 의례적 왕래를 한 200년간의 선린 관계의 의의를 언급치 않고, 한국측의 통상의 필요와 욕구로 교역한 것처럼 기술했고, 한국의 통신사가 올 때마다 일본의 문인·학자·의사 등이 찾아와 조선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환대한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8. 門戶開放

운양호 사건은 조선측의 발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불법 영해 침범인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접근이라 표기했고, 당시 일본 내의 征韓論者들의 우월감을 만족시켜 준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배제하고 일제 침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주 독립국이라 해 놓고, 조선을 개방시키고, 그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선처인 양 왜곡하고 있다.

10. 甲申政變

점진적 개혁을 추진한 事大黨과 급진적 정치체제의 개혁을 시도한 獨立黨을 정권 유지만 도모하여 淸國을 종주국으로 모시려는 세력과 일본과 관계를 맺고 제도의 근대화를 꾀한 세력으로 편파적으로 규정하여 은연중 일본의 역할을 과시하였다. 갑신정변이 淸日에 의존한데서 비롯되었고, 淸軍의 반격으로 실패한 양 서술하여 개화 세력의 자주적 성장을 은폐하였고, 종속성·당파성 식민사관을 부식하였다.

11. 東學 農民運動

반봉건, 반침략의 동학 농민 운동을 농민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민중 운동을 지역적 반란으로 축소시켜, 주된 원인인 일제의 침략성을 糊塗하였다.

12. 甲午改革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내정 개혁을 요구한 것을 내정 지도로 기술하여 일제의 우월 의식과 한국민의 멸시감을 드러내었다.

13. 閔妃弑害 및 高宗退位

조선 내의 親露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日本公使 三浦梧樓 주도하에 자행된 만행을 한국 내의 정치 세력의 대립에 의해서 일본군과 민간인들이 단순히 저지른 소행으로 責任을 轉嫁하였고, 關東大震災도 유언비어에 따른 군중들의 우발적인 흥분이었다고 그들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를 은폐하였다.

또, 乙巳條約의 실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밀사를 보낸 것을 트집잡아 강제로 한국군을 해산시키고 고종 황제를 마음대로 퇴위시킨 眼下無人的 행위를 讓位를 재촉하였다고 왜곡하였다.

14. 乙巳條約과 韓日併呑

노일전쟁 중 강제로 韓日議政書를 체결하여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戰後에는 군대를 增派 示威下에 乙巳條約과 丁未七條約을 강요했는데, 이 침략의 마수를 진출로 왜곡하고 韓日併呑이 양국의 會議下에 합법적으로 접수한 것 같이 정당화시켰다.

15. 武斷統治와 土地掠奪

한국민의 자주와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박탈한 총독부 통치의 목적은 독립 운동의 탄압이었는데 치안 유지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고 왜곡하였다. 또,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였다. 농민들은 법에 어둡고, 그 절차가 까다로와 정한 날자에 등록하지 못하자 주인 없는 땅이라고 총독부가 차지해 버렸다. 이에 한국의 경제 기반은 무너지고, 유랑민들이 속출하였다.

16. 義兵戰爭과 3.1運動

의병 투쟁은 일본의 한국 주권 탈취에 대한 민족적 항일 독립 전쟁인데 무장 반란으로 규정했고, 안 중근 의사를 암살자로 그 역사적 의의를 말살하였다.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한 거족적 항일 3.1 독립 만세 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표기하여 그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 역량을 부인하였다. 광주 학생 운동도 도화선에 불과한 여학생 모독이 전모인 양 기술하였다.

17. 韓國語抹殺과 創氏改名 强要

조선의 皇民下를 위해 조선어학회 사건을 날조하여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공문서를 일본어로만 통일해 놓고,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까지 하도록 경찰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했는데도 국어 사용의 자유가 제한되고, 창씨 개명이 추진되었다는 막연한 용어로 왜곡하였다.

18. 徵兵·徵用·挺身隊

17세 이상의 한국 청년 40만 명이 침략 전쟁에 동원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485만 명이 징용에 끌려가 노예처럼 혹사 당하였으며, 12세~40세 미만의 여성들을 공장이나 南洋의 최전선에 투입하여 심지어 위안부로까지 전락시킨 비인도적 만행을 자행한 정신대를 숫자만 축소시켜 여자 정신대의 이름으로 공장에 모았다고 은폐하였다.

19. 日帝의 强占延長

교과서 뒷면 年表를 보면 1948년까지 일본 점령기, 일본의 지배, 일본령 조선 등으로 명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광복되었는데, 대한 민국 정부 수립까지 강점 시기를 연장한 것은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한 역량을 무시한 타율성으로 설명한 것이다.

20. 抗日獨立運動

1920년대 이후 한국의 독립 운동을 조국 광복회, 조선 인민군 등 조작된 김 일성의 활동만 소개하고 그 핵심인 임시 정부의 활동은 고의로 묵살함으로, 독립 운동의 전모를 왜곡 은폐하였다.

21. 政府 樹立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공인 받은 대한 민국과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동격으로 기술하여 한·일 기본 조약을 위배하고 있다. 또, 1945년 9월 서울에서 조선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해방 직후 유명 무실했던 건준이 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북한 편향의 왜곡을 보이고 있다.

22. 6·25 南侵

북괴의 공산화 음모 아래 감행된 6·25 남침을 남북 군대가 충돌하여」 등으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서술, 왜곡하고 있다.

23. 韓日基本條約

일본의 교과서는 한일 기본 조약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日·朝(北韓) 關係에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는 등으로 서술하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조선 민족의 통일을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왜곡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4·19, 5·16, 金大中 납치 사건, 광주 사태 등을 왜곡 해석하여 韓日間의 선린 우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Ⅲ. 日本地理 및 現代社會 敎科書에 나타난 韓國의 이미지

일본의 《지리 교과서》는 농업, 임업, 광업, 지하 자원, 공업, 무역, 국토 개발 등 한국의 생활 일면과 도시, 인구 등을 偏見的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낡은 통계를 사용하여 의도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민지 통치 하에 한국에 대한 죄의식은 커녕 아직도 한국이 일본의 영향권 속에 지배를 받아야 마땅한 나라인 양 착각을 줄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경제 발전 능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인정치 않고 가난한 농업국, 일본의 경제 협력에 의존하여 살아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공산 남침의 야욕을 물리치면서, 얼마나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우렸는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關東大學 李長烈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또 식민 당시의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農 業

조선은 인구의 반 이상이 벼농사를 하는 농업국으로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은 0.5ha 정도여서 영세농가가 많다. 논은 治水와 灌漑施設이 불충분하여 천수답이 많다. 한해와 풍수해를 자주 입는다. 농업의 기계화는 찾아볼 수 없고 농산물은 벼, 밀, 콩 면화, 담배, 차 등으로 이모작, 삼모작이 행해진다.[1]

〈교과서에 실린 원문임〉

대부분 《지리 교과서》들의 농업에 대한 기술 형태들이다.

근래 주곡 농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 作物, 원예 과수 농업으로 생산 구조가 바뀐다든지, 1976년 농업 인구가 38%로 더욱 감소되고, 1戶당 경지 면적이 0.96ha, 경지 정리와 함께 관개용수를 개발하여 85% 이상이 수리 안전답으로 全天候 영농으로 바뀌었다든지, 1970년 새마을 운동 이후 동력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의 집약도가 완화되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면화는 값싼 原綿의 수입과 화학 섬유의 보급으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 약간 재배될 뿐이어서 주요 농산물이 될 수 없고, 중부 이남 지역의 논의 그루갈이는 있으나 삼모작 지역은 찾기 어렵다.

2. 鑛業과 電力

조선에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 重石 생산은 세계적이나 그 외 石炭과 金이 조금 산출된다.[2]

〈일본 교과서에 실린 원문〉

우리 나라는 광물의 표본실이라 부를 만큼 광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 양은 많지가 않다. 인구 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 경제 발전 등에 따라 광물 자원의 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해외 의존도도 높아졌다.

매장량이 많은 광물은 중석·흑연·철·석회석·무연탄·금·규사·모리브덴·고령토 등이며, 최근 철원 포천 등지에서 우라늄광이 다량 발견되고 있다.

우리 나라 발전 설비의 구성은 1979년 현재 수력 11.3%, 화력 81.4%, 원자력 7.3% 순이다. 수력 발전소는 14개소, 화력은 25개소로 주로 북한강 연안의 수력과 南東 임해 공업 지역에 화력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3. 工 業

조선의 공업은 輕工業(서울, 인천)이 중심이고, 근래에 와서 일본·미국의 자본과 기술의 원조를 받아 제철, 기계, 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포항, 울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임해 공업 지역은 일본의 경제 원조로 이루어졌다.[3]

〈일본 교과서에 실린 원문임〉

---

1) 敎育出版社에서 펴낸 《중학 사회》 196페이지에 실려 있는 〈한국의 토지 이용도〉는 삼림, 벼농사, 밭농사, 이모작의 북한계(北限界)가 모두 틀려 있어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토지 이용율도 낮게 표시되어 있다.

2) 中敎出版社에서 펴낸 《일본과 세계》 193페이지에 실려 있는 광업지도는 석탄과 금만 생산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발전소도 7곳 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후진국의 이미지를 짙게 한다.

3) 山川出版社에서 펴낸 《세계 지도》 66페이지에는 한국의 공업 지대를 경인, 부산, 남서(南西) 공업 지대로만 표시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일본, 미국의 원조로 공업화되었다는 식민사관을 부식하려고 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해방 속의 혼란과 국토의 양단, 6·25 사변으로 공업 시설이 파괴되었으나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된 후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뜨거운 열망 속에 인재 확보, 공업화, 수출 무역 증대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물론 미국, 일본, 서부 Europe 선진국과 경제 협력을 맺고 자본 기술의 도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부산 공업 지대는 포항에서 여수를 잇는 남동임해 공업 지대로 확대 해석해야 하며, 태백산 공업지대, 영남 내륙 공업 지대를 추가해야 한다.

4. 貿 易

조선 무역의 상대국은 일본과 미국이고, 수출품 중에는 일본의 자본 기술 도입으로 제품화된 것이 많다. 국내 시장이 좁아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한다. 노임(勞賃)은 선진국에 비하여 싸므로 상품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원문임〉

1960년대 이후 무역 구조의 질적 변화로, 공산품이 90%가 되고, 대형 선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이 활기를 띄어 plant 수출도 본궤도에 올랐다.

일본의 경제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무역하며, 우리의 노력을 인정치 않고 임금이 싸서 후진국으로 무역이 유지된다는 얄팍한 식민지 잔재를 남겨 놓고 있다.

수출 상대국은 130개국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쿠웨이트, 서독, 카나다, 홍콩, 네덜란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고, 수입 상대국은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서독,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

5. 國土開發

소양강 댐을 비롯하여 낙동강, 금강의 개발은 일본의 기술 원조와 자본 진출로 이루어졌고,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원조로 자동차 고속도로와 항만 정리가 시작되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원문임〉

국토 개발도 전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의존한 느낌이다. 한국이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성공한 까닭은 우수한 두뇌와 집념의 의지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타율성 이론에 몰아넣고 있다.

물론, 국내 자본만으로 부족하여 EC 제국, RBD, ADB 등에서도 외자를 도입하였다. 1차 국토 개발 중에는 섬진강 남강, 다목적 댐과 울산 공업 센터, 동진강 간척 사업, 산업 철도의 개설 등을 이룩했고, 2.3차 국토 개발 중에는 고속 도로 건설, 소양강 다목적댐 인천 도크, 묵호항 정비, 耕地整理 등을 진행하여 1977년에는 수출액 100억불을 초과 달성하였던 것이다.

6. 人口와 都市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고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어 도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시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마산, 군산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원문임〉

대부분 낡은 통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80년 현재, 총인구는 3,800만, 인구 밀도 378인, 인구 증가율 1.58%라 해야 바른 표기가 될 것이다.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던 슬럼가가 철거되어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불규칙했던 도심지를 재개발하여 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고층화가 진행되어 대도시가 과대 팽창되었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80년 현재 도시 인구는 2,150만을 넘어 인구의 60%가 도시 생활을 하고, 서울 인구는 836만으로 총 인구의 22%나 되며, 위성도시의 발달을 추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

7. 地圖 및 表記上의 誤謬

대부분 일제 시대 사용한 용어들로써 대한 민국→南朝鮮, 동해→日本海, 동한만→東朝鮮灣, 독도→竹島, 압록강→야루江, 6·25사변→朝鮮戰爭, 장항선→忠南線, 동해시→墨湖, 남포→鎭南浦, 충무→統營

8. 神社參拜의 强要

淸水書院의 《현대 사회》 교과서 121페이지에는 '신사참배를 장려하였다'고 왜곡하고 있다.

1919년 한국 통치의 도구로 朝鮮神社를 설립

하고, 1936년 皇國臣民 政策에 따라 1938년부터 매월 1일은 애국일로 정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의 폐쇄는 물론 기독교인의 신앙까지도 억압하고 투옥, 고문, 심지어 살해까지 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Ⅳ. 美國의 敎科書에 나타난 韓國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여러 나라들의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한 그 나라 언어로 된 교육 정보의 부족, 참고 문헌, 최신 통계 자료 등의 부족, 한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왜곡과 부정확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왜곡」은 근거 없이 날조한 것인데, 반해 기타 국가의 「부정확」은 한국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미국 Arizona 주립대의 曺瑛煥 교수는 '미국의 교과서는 Asia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한국은 몽고나 기타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보다는 자세하나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역사 부분의 서술에 있어서도 일본과 중국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도 자치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 제도나 외국 통치에 익숙한 국민으로 묘사되어 있거나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rizona 주에서 사용하는 중·고·대학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Asia를 다룬 16개 세계사 교과서에서 조차 Asia를 도외시했거나, 세계사나 세계 문화 속에 기여한 바나 그 역할을 극소화하였으며, 이 중 12권은 한국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50여년 전에 형성된 고정관념으로(선교사들의 포교시절부터 6·25동란 중 救護 물자대상에 까지) 기술·평가하거나 낡은 통계를 사용하여 한국의 발전상의 부정적인 면과 침체된 생활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대학생수는 약 10만 명, 보건 후생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주택은 옛날 오두막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한국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이다. 농업은 한국의 중심 산업으로 원시적 手勞動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기술이 그것이다. 심지어 '한국의 여자들은 세탁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G. Leinward의 《세계사의 위관》).

농사를 손으로 지어야 하는 이유는 가축이 없고 현대적 농기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P. cutrigh의 《세계 여러 나라의 이웃으로써》)이라고도 하며, 한국인은 인구의 80%가 농민으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서술한 것도 보인다(Haralt. D.의 《동아시아 諸國》).

국토 분단과 전쟁 때문에 남·북한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J. H. Brader의 《세계지리》, D.E. Tawes의 《넓은 세계》).

미국의 경제 원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잠재력을 제약당했다(C. F. Kohn의 《오늘의 세계》).

남한은 섬유 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으나 거액의 외국 원조가 더 필요하다《오늘의 세계지리》. 이 책에서만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에 관한 기사가 언급되었다.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A.O. Mazour의 《인간과 국가》). 분단된 남북한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이 왕래한 결과 북한 인구가 크게 줄었다(D.E. Jame의 《넓은 세계》).

박 정희 정권은 억제 정책으로 버티는 불안전한 정부(A. Schwart의 《일본·중국·한국의 역사·문화·인종》)하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책은 단 한 권 뿐이었다(L.B. Rogers의 《여러 민족 이야기》).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국은 전쟁의 희생물로서, 또 미국 외교 정책의 문제점으로 간략히 기술되었을 뿐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지닌 국가로는 다루지 않고 있다. 2차 대전 전에는 일본·중국과 결부시켰고, 戰後에는 일본·미국·중국·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맡아야 할 「黃色人의 負擔」으로 한국 통치를 정당화하고(T.E. Ennis의 《동 Asia》, 1928, 1936, 1959 중판 계속임), '동학은 위험스러운 동양적 광신자들의 집단」으로 표시했는데, 이

것은 일본 자료에서 原資料를 취했기 때문이다.

부산을 Fusan(후산)으로(N. Petter 《극동 근대화》). 일본식 발음을 로마字化한 것을 보면 더욱 뚜렷히 엿볼 수 있다.

V. 기타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기타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는 지역별 언어권으로 묶어 프랑스어·독일어 및 북구라파권, 동남 Asia 및 인도권, 아랍권, 스페인어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낡은 통계 자료를 이용했거나 일본·중국의 原資料를 취한 것이 대부분이다.

▨ **프랑스권 교과서** 한국에 관한 기사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우리 나라의 외교 및 홍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

▨ **독일어권 교과서** 한국은 1905년 이래 일본의 통치 지역이었다 하면서 그들의 침략의 강점성은 언급치 않고, 6·25의 남침과 공산 음모는 언급치 않고 3년 전쟁만 묘사하고 있다.

▨ **벨기에 교과서** 휴전 회담 후 남한이 미국의 영지가 되었다는 國是冒瀆을 드러낸 것도 보인다.

▨ **인도 교과서** 6·25남침을 단순한 전쟁 발생으로 표현했고, 미국의 요청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미국과 몇 나라 동맹군만이 참여했으며, 미국군이 대부분이라고 UN 16개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 **요르단 교과서** 1948년 8월 17일 리 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대한민국 수립 선포의 날인 8월 15일과 혼동 기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말레지아 등의 교과서를 들 수 있다.

▩ **인도네시아 교과서** 남·북한 지도자들이 평화통일을 원하나 북한은 외세 없이 국민 독자적으로 이룩하길 원한다는 북한 편향의 글이 실려 있다. 남북 대화에 일방적으로 불응하는 북한의 태도도 언급되었으면 한다.

▨ **타일랜드 교과서** 한글이 중국의 한자와 같고, 중국의 箕子가 조선을 건국하여 900년간 통치한 후 4國으로 분할되고, 신라는 당의 힘을 빌어 통일한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唐에게 양도했다고 피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글의 독창적 表音文字,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의 시작, 삼국 분할, 통일 신라가 唐과 오랜 항쟁 끝에 격퇴한 사실을 모르고 막연히 중국의 영향 밑에 있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말레이지아 교과서** 한국엔 벌거숭이 산이 대부분이고, 농업의 40%가 벼 재배 중심이고, 검은 보리, 밀, 면화 등이 산출된다. 중요 광물로는 텅그스텐, 어업은 북한보다 성하지 못하며, 공업도 경공업으로 북한보다 못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한국인은 대부분 도시 밖에서 농경지에 의지하여 살고 있으며, 서울(450만)은 가장 큰 상업 도시이고, 남한 인구는 3,190만명이다.

「Korea」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을 「조선」 혹은 「조선 반도」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투자에 의하여 공업이 발달하였고, 통일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의 방바닥은 온돌로 중국의 抗과 비슷하다는 등 일본의 왜곡된 자료에서 낡은 통계, 북한 편향의 서술을 인용하고 있다.

▩ **필리핀 교과서** 북한 사람은 중국계 인종으로 키가 크고 목소리도 굵고 거친데 남한 사람은 말레이 인종으로 키가 적고 안색이 검다는 등 자기류로 사고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남·북한의 대립 양상이 당파나 인종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Korea란 어원도 고려의 애국자인 왕건이 唐王朝에 대항해서 건국했다고 했는데 이 때는 이미 당나라가 멸망하고 五代十六國의 분열기였다. 신라시대 NIDO(吏讀)를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과 혼동하고 있다. 금속활자의 발명도 구텐베르그보다 200년이나 앞섰는데 「반세기」로 기술했고, 중국의 선교사인 周文謨 신부의 처형을

J. Dos, Remedias신부로, 3·1운동 당시 일본이 8,000명을 살해하고 47,000명을 투옥한 것을 500명 이상을 죽이고 1,900명을 투옥시켰다고 기술한 것은 모두 일본의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때문이다. 또 3·15부정선거, 5·16군사혁명을 각각 3·19, 3·16으로 서술했다.

Ⅵ. 結論 및 提言

일본에서는 외국에 대한 일본의 바른 지식을 소개하기 위하여 1957년 부터 「국제 교육 정보 센터」를 두고 25년간 외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기타 신문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왜곡된 것을 정정 의견과 함께 일본에 관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왔다.

해외 전시를 자주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전문 학회를 통하여 발표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정부 기관이 직접 맡아서 하면 외교적 항의도 의식하고 내정 간섭으로 여길 것을 염려하여 사설 단체인 「국제 교육 정보 센터」를 통하여 많은 시정 활동을 해 왔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1977년 레바논 교과서에 6·25사변을 북침으로, 해방이 김 일성의 무장 독립 운동의 결과인 것처럼 왜곡 표현된 것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韓國觀 是正事業에 들어 갔던 것이다. 이에 장기적 안목에서 국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올바른 이미지를 바로 심으려면 해당국과의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외교 문화 정책 면에서 국제 문화 교류, UNESCO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미술 5,000年展은 이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째, 서독과 프랑스 간의 교과서 시정은 「Gerhalt Eckert 연구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한·일, 한·미 등의 교과서 연구소를 설립하여 장기적 지속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겠다. 일본과 필리핀 간에는 이미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세째, 정부 각 기관의 적극적인 유대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부처끼리의 협의체보다 총괄 부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분담 활동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네째, 학자들의 상호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의 학자들을 이미지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교과서 전문가·출판사 대표들의 초청 세미나, 의식 조사 활동 등을 통한 장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 보도되는 한국에 대한 기사의 대부분은 일본의 자료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일본화한 한국관이 문제가 된다. 세계 지도자들이 일본만 보고 한국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

문교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 교과서 센터」를 세워 적극 지원하려는 계획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각 언어권 전문가들이 각국 교과서를 수집·분석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간다면, 밝고 명랑한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표-1〉 연도별 한국판 시정 사업 추진 실적

1975~'77년도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시 행 기 간	비 고
1. 외국 교과서 수집 검토	23개국 2,101책	'75. 9.20- '76. 2.15	본표는 문교부 편수국과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등에서 작성한 실적표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2. 시정안 작성 인쇄 송부	① 일본 교과서「사회」외 2과목 190책 ② 독일어 외 21개국 208책 ③ 교과서 편찬 자료 송부 대상국 : 태국 자 료 : 1종 15부 ④ 시정안 송부 독일 외 20개국 420부	'75.10.26-11.30 '76. 1. 5- 2.28 '76.8. 28 '75.12.30	
3. 일본 교과서 관계자 초청 협의 (대한 교련 주관)	① 인원 : 일본 출판 관계자 6명 ② 내용 : 협의회 개최 한국측 : 서울대 교수(이원순 외 5명) 시정안 교부	'76. 8.23-29	
4. 일본 문부성 교과서 조사관 조정 협의회	① 인원 : 3명 ② 내용 : 협의회 개최(시정안 교부)	'76.10.26-27	

1978년도

레바논 역사 교과서 1권 시정

1979년도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시 행 기 간	비 고
1. 외국 교과서 수집 및 검토	13개국 284책		시정안「JAPAN」만 남아있음. 한일의원 연맹에 복사본 제공(82. 2)
2. 시정안 작성 인쇄 송부	8개국 90책		

1980년도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시 행 년 도	비 고
1. 교과서 수집검토	10개국 130책		본원에는 현재 10개국 34책에 대한 한글 번역 자료, 9개국에 대한시정안, 현지어 번역만이 접수·보관되어 있음.
2. 시정안 작성·인쇄 송부	10개국 51책		

1981년도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시 행 기 간	비 고
1. 외국 교과서 수집 및 검토	9개국 99책 • 81년도 수집 교과서 : 4개국 72책 • 목록 및 발췌본 : 2개국 2책 • 80년 이월 대상국 교과서 : 2개국 24책 • 발췌본 : 1개국 1책		
2. 한글 번역	5개국 38책		
3. 한국관 시정 사업 이관 준비			

1982년도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시 행 기 간	비 고
1. 외국 교과서 왜곡 내용 시정 및 한국 관계 자료집 개발			
1) 외국 교과서 수집	• 외국 교과서 : 10개국 499책 발췌본 : 2개국 3책 참고교재 : 1개국 2책 • 국내 참고도서(영문판 한국관계 자료 포함) : 55책	1. 5-12. 31	8. 31일 일본 외 7개국 107권의 교과서 및 2개국 3책의 발췌본 1개국 2책의 참고 교재가 외무부 경유 문교부에서 송부해 옴
2) 검토·분석 및 한글 번역 (1) 프랑스 교과서	• 프랑스 교과서 363권 분석(그 중 61권이 시정 대상 사회과 교과서)	1. 20-8. 9	
(2) 미국 교과서	• 한글 번역 • 뉴욕 총영사관에서 송부한 미국 교과서 6권 검토	8. 9 완료	
(3) 일본 교과서	• 일본 교과서 89권에 대한 분석		
3) 시정안 작성 ('81년 이월 5개국 : 일본, 서독,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요르단)	• 한글 번역 완료('81) • 출판사, 저자, 과목별 분류표 작성 • 시정안, 시정 방향 지침 작성	5. 4 완료 5월-7월	

2. 조사 연구 1) 왜곡 원인 분석을 위한 질문지 조사	• 미국인 교과서 관계자 대상 질문지 작성 • 미국인 사회과 전문 학자 및 교사(23명)를 대상으로 조사 완료(7.29 1차 실시) • 2차 실시(10. 중순 예정)	3. 2-12.31	
3. 학자 교류 및 세미나 개최	• 외국 저명 교과서 저자 초청 계획 • 강의 자료 및 세미나 참고 자료 개발을 위한 준비	10월 중순 개최 예정 3월-5월 8월-9월	
4. '82년도 일본 문제 교과서에 대한 조치	• '79년도, '81년도 일본 교과서 한국 관계 내용 분석·비교 • 우리 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일본 관계 내용 분석 • 국사 편찬위원회에 의뢰하여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 집중분석 • 일본 교과서 내의 북한 관계 내용 검토 • 일본 역사 교과서 내의 '침략' 행위를 왜곡 미화한 부분 검토·조사 •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왜곡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 작성 • 일제 침략사 왜곡 관계 내용 대비표 작성 • 일본의 외국 교과서 정정 사례 중 우리나라 관계 내용 왜곡 수정. 교과서 목록 작성 • 즉각 시정을 요하는 각 항목에 대한 시정 요구 대응 문안 작성 •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유네스코 활동 보고 •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외국의 활동 사례 작성 • 75-82년 한국관 시정 사업 추진 상황 및 주요 근거 자료 작성 •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내용 개선 의견	7. 10 완료 7월 완료 8. 3-20 8월 완료 8.25 완료 8. 25 완료 9. 9 9. 3-9.10 9. 6-21 9. 6-21 9. 6-21 9. 15-24 9. 29-30	*자료 제공 한·일의원연맹에 자료 제공(7. 30) 문교부 문교부, 국회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표-2〉 대상 국가별 추진 실적

지역별	국가별 \ 연도별	'75-'77 수집 책수	'75-'77 시정·현지어 번역 책수	'78 수집 책수	'78 시정·현지어 번역 책수	'79 수집 책수	'79 시정·현지어 번역 책수	'80 수집 책수	'80 시정·현지어 번역 책수	'81 수집 책수	'81 한글 번역 책수	'82(9월 현재) 수집 책수	'82(9월 현재) 검토·분석	'82(9월 현재) 시정안 작성 '81년 이월 대상국
아시아 (16)	일본	1,846	198			180	75			39	20 (16)	90	90	16
	이란	39	5											
	싱가포르	11	8											
	홍콩	5	5											
	파키스탄	3	3											
	중화민국	1	1											
	말레이지아	1	1							5	5			5
	버어마	1	1											
	인도네시아					9	8			27	2 (1)	3		1
	사우디아라비아					5								
	터어키					2								
	필리핀					1	1	3	3			1		
	타이							3	2					
	인디아							6	3			1		
	네바논			1	1									
	요르단									1	1			1
유럽 (11)	서독	34	34			16				23	10	3 교(3) 발(1)		10
	영국	12	12					68	23					
	덴마아크	11	6											
	스웨덴	7	4							발(1)				
	이탈리아	5	5											
	오스트리아	3	3											
	프랑스	3	2					38	11			367	363 4권 진행중	
	스페인					23	2							
	네델란드					3	1					발(2) 참(2)		
	벨기에							1	1					
	핀란드							2	2					
북아메카 (3)	미국	28	28			30	1	5	3	발(1)		29		
	멕시코	1	1											
	캐나다					1				목(1)				
남아메카 (4)	브라질	8	7											
	우루구아이	6	6											
	아르헨티나	1	1											
	파라구아이							4	1					
오세아니아 (2)	뉴질랜드					8	1							
	오스트레일리아					2						2		
아프리카 (4)	이집트	73	73					1	1	1				
	튀니즈	1	1											
	코르디브와르	1	1											
	자이레								3	2				
계 40개국		2,101	406	1	1	284	90	130	51	99 교(96) 발(2) 목(1)	38	504 교(499) 발(3) 참(2)	453	33

1) '81년도의 한글 번역 책수 난의 ( )안의 숫자는 '82년도로 이월된 책수를 나타냄.
2) 도표의 「교」는 교과서, 「발」은 발췌본, 「참」은 참고 교재, 「목」은 목록의 축약 표기임.

民族主體性 確立을 위한 教育의 課題: 哲學的 觀點에서

金 安 重
(道德教育研究室長)

I. 序

이하에서 필자는 소위 민족 주체성이라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밝혀서 나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민족 주체성'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 사이의 관계 및 그 언저리의 문제들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최근의 소위 '歷史歪曲'에 따르는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의 지식인과 교육자들이 반드시 한번쯤 짚고 넘어 갔어야 할 한 가지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이 교육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를 찾아 보는 것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글은 교육이 원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II. '歷史歪曲'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歪曲하고 있다고 흥분해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본은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의 여러 민족에게 많은 만행과 죄악을 저지르고, 전후 그들의 경제력이 좀 향상되고 따라서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흥분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물론 최근의 일본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만 반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냉정히 이번의 소위 역사 왜곡의 문제를 따져서 깊이 생각해 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가 거기에서 건질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소위 '歷史'란 무엇이며, 그것을 '歪曲'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인가에 관한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최근의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 의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즉, 역사란 '지나간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사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고, 지금의 일본 사람(또는 일본의 文部省 사람들?)들은 그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관점은 아주 단순한 것이며, 그것이 단순한 만큼 명확하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냥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들을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술할 수 있으며, 또 기술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기술할 때에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는 불가피하게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의 목적 또는 국가라는 집단의 이념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 맺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에 얽힌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고찰할 수는 없다.[1]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최근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진술해 두자. 즉, 최근의, 소위 역사 왜곡을 주도한 사람(일본 사람들)들은 명백히 위의 두 가지 중에서 후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우리 한국인들과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전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역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왜곡 불가'라고 외치는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역사란 '기록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는 일본 사람들의 관점대로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역사라는 것을 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반드시 「일본인 대 한국인」과 같은 식으로 하나는 일본인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인의 관점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드시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자신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소위 왜곡이라는 것이 끼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그런 까닭은 반드시 사람들의 감정이나 편견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이 원래 '선택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피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도 기록하고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이 아니라 정직인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의 역사 왜곡 사건에서 우리가 건질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고, 이 점은 그 동안 우리의 언론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Ⅲ. 교육의 문제

필자가 보기에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다음에 온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왜곡 여부의 문제는 전적으로 역사 학자들의 소관이고, 따라서 역사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역사 교육의 문제로서의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역사 학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는가에만 전적으로 달려 있고, 교사는 그 기록된 바를 그냥 가르칠 뿐이기 때문에 왜곡의 경위나 과정은 교사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교사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수의 역사학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옳은 생각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 현실과 관련해서 볼 때에 이와 같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가정들을 자세히 따져 보지 않는 데에 우리 교육의 약점이 있다. 필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의 교육(학)자들이 건져야 할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위와 같은 가정을 점검해 볼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라는 것을 교육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것이 교육의 문제라는 말인즉, 그것이 한·일간의 어떤 정치적 또는 역사적 관계에서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한다(explanation)는 것이 이 점에서 어떤 성격의 일이며,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역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적 연구의 공통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심있는 사람은 William Dray (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History* (N.Y.: Harper & Row, 1966)를 읽는 것이 좋다.

행하는 인간 활동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이다. 교육이라는 일은 지구 위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한 사회의 교육 내용이란 그것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과는 상관 없이 그 사회가 정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 교육은 역사 학자들이, 정치 교육은 정치 학자들이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 예이다. 그래서 교육을 직접 맡은 사람들은 이들이 정해 주는 내용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 역사 교육의 경우, 역사 학자들이 먼저 역사의 내용을 정하고, 그 정해진 대로 교사는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람들은 먼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치는 일본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역사 교육의 내용은 그냥 정해지는 것과 같다. 일본 사람들이 실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필자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역사 교육의 문제를 보는 배경에는 그 비슷한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동안 역사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일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촛점을 맞추어 앞다투어 일본을 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왜 우리가 역사뿐만이 아니라, 또는 역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을 비난하지 않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아니 그 점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을 전후해서 한번도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는 것이 궁금하다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간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을 정의하는 관점이 있는 듯 하다. 쉽게 표현해서 그들은 교육이란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기르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교육이란 것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國土廳 장관인가 누군가가 말한 대로 일본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정 간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후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겠다는 데에 누가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국토청 장관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제 순서는 우리에게로 돌아 와서 그들의 그런 교육관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것인가?

Ⅳ. 모든 人間活動의 指標로서의 교육

일본 사람들을 두고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육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역사 교육의 경우를 보자. 만일, 일본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간에, 역사 교육의 내용은 교사들이 그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미 소위 역사라는 것, 또는 역사 학자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고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역사 교육의 내용은 먼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가를 밝혀 놓은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앞에서 예로 든 대로, 교육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역사 교육은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가르친다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현상이나 사건을 보는 소위 '교육받은 자의 觀點'을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편견과 독단과 근거 없는 이데올로기만을 주입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한 나라의 역사 교육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의 문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2]

2) 歷史를 '事實의 기록'으로 볼 것인가, '보는 사람의 觀點'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바로 이 敎育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하의 글 參照.

우리가 이번에 역사 왜곡 파동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이다. 필자더러 말하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번의 파동은 일본 사람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일본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기르는' 정도의 일로 생각한 것의 반영일 뿐이다. 그들의 이런 '敎育觀'이 왜 좋지 못한 것이며, 정확히 어디가 잘못된 관점인가를 우리의 교육 학자들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과 같으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육을 보는 관점을 다시 조사해 보는 일이기도 하다.

만일 필자의 이와 같은 관점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비단 역사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도덕 교육의 예를 들어 보자. 사회 학자들이나 문화 인류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도덕'이란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옳은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도덕'이라는 것이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 '事實' 때문에, 따라서 도덕 교육도 문화권이나 지역·시대·국가와 민족 등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주장은 앞에서 말한 바,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의 '道德敎育版'일 뿐이다.

역사 교육이든 도덕 교육이든, 모든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일이다.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육을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써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는가?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이 다 다를 것이 아닌가?" 아, 그렇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제 자식 제 마음대로 기르는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인간의 인간답다는 기준,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에는 일본의 양심이, 중국에는 중국의,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우리 한국의 양심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교육은 인류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規制되고, 그것을 기르는 일이다. 비단 역사나 도덕 뿐만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 법과 종교와 학문과……이 모든 인간 활동이 이 교육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항상 그 방향과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가진 이 기준은, 프로타고라스의 표현법을 인용하면 "萬行의 尺度"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 글의 주제인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敎育의 課題'도 이 점을 깨닫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

교육학 신간 서적 안내

◇ 교육 사회학 ◇

강 상철 저/형설출판사/ 전화 723—7868/1982/532페이지/6,800원

주요 내용

- 교육 사회학
- 학교 교육
- 지역 사회교육
- 사회 발전과 가치관
- 평생 교육
- 교사의 자아개념
- 편견과 교육
- 인간 교육
- 인구 교육
- 창의성 발달
- 공무원 교육
- 주체성 : 발전의 정신

◇ 학교와 학급 경영 ◇

김 봉수 저/형설출판사/전화 723—7868/1982/344페이지/5,500원

주요 내용

- 학교행정의 기본 기념과 조직
- 지도행정과 교원 인사 행정
- 학교 경영의 개념·원리와 기술·실제
- 학급 경영의 개념
- 학급 교사의 임무와 자질
- 학급 경영의 실제

本院 研究報告 抄錄

國民學校 敎科用 圖書 現場實驗 硏究(Ⅰ)
—1, 2, 3학년용을 중심으로—

한종하, 곽병선 外 2人, 연구보고서 제140집, 1981, p. 113, 한국어

본원은 문교부의 위촉을 받아 1982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國民學校 敎科用 도서를 연구·개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일련의 과제 가운데서 수행된 국민학교 1, 2, 3학년 교과용 도서 現場實驗 硏究를 기술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참여한 학교는 전국 12개 교대 및 사대 부속 국민학교와 각 시·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된 23개교이며 직접 참가한 인원은 교원이 515명, 1, 2, 3학년 학생이 25,582명이다. 이 외에도 장학사 및 연구사와 4개의 준거 학교가 참여하였다.

교과용 도서의 수정·보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집중 연구 교과를 배정하였으며 서울, 부산, 제주의 경우는 모든 교과를 배정하였다. 실험용 교과용 도서의 바람직한 현장 적용 과정 및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주로 事前 敎員硏修, 現場指導, 面接調査 및 質問紙 의견조사, 學校實態調査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現場實驗 結果는 (1) 實驗用 敎科用 도서의 개선 (2) 실험용 교과용 도서의 현장 적용 (3) 실험용 교과용 도서의 잠정적 효용성으로 구분하여 진술되었으며, 현장 실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行·財政的 지원의 요청 등이 제안되었다.

韓國兒童의 言語發達 硏究
—音韻發達 및 語彙發達을 中心으로—

權敬顔, 연구보고서 제148집, 1981, p. 243, 한국어

본원에서는 1979년부터 80년까지 음운, 어휘, 구문 발달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으며 이는 주로 言語의 표출면만을 고려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6~6:5세 아동의 음운 및 어휘발달 경향을 횡단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역, 연령, 취학전 교육의 有無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유층별 무선 표집에 의하여 453명을 선정하고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한 4개의 個人用 검사—음성 표출 검사, 음성 변별 검사, 사용 어휘 검사, 이해 어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사용 어휘 검사→이해 어휘 검사→음성 표출 검사→음성 변별 검사'의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결과 분석은 조사 대상의 생활 연령에 따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 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은 4개의 연구 문제별 즉, (1) 음운·어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언어 계층간 상호 관계 (3) 음운 발달 (4) 어휘 발달로 구분되어 요약되었다.

부록으로 검사도구와 외국의 음성·어휘 검사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교육 Thesaurus 개발 연구

최윤도, 정택희 外 1人, 기타 연구물, 1981, p.42, 한국어

본 연구는 정보량의 급증과 정보 성격의 전문화 및 다양화 현상에 대비하여 교육 자료 정보의 축적 및 검색의 자동화를 위한 도구(시소오러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KEDI 시소오러스는 미국의 ERIC 시소오러스를 참고로 하여 용어의 선정, 주제 영역의 결정, 색인어 추출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KDEI 자료 분류 기준표에 의하여 가나다 순 배열과 주제별 배열을 하였다.

한편 KEDI 教育 시소오러스의 向後 發展 과제로는, (1) 국내에서 생산된 연구물의 축적 및 검색을 위한 디스크립터의 선정 및 추가 삽입 (2) 디스크립터 적정성의 재검토 (3) SCOPE Note 달기 (4) USE, UF 달기 (5) 최근의 ERIC 시소오러스 개정판의 내용 반영 (6)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크립터의 배열 등이 제안되었다.

새 教育體制 適用學校의 學業成就度 決定要因에 관한 연구

朴慶淑, 金正煥 外 1人, 기타 연구보고, 1981, p.65, 한국어

본원은 1972년부터 초·중학교 교육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새 교육 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새 교육 체제 적용에 관련된 제변인들 즉, 새 교육 체제의 구성 요소들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그 요소들의 타당성 여부와 또 다른 교육 혁신 사업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원리를 찾아 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전국의 30개 시범·협력 및 비적용 학교에서 추출된 국민학교 5학년 학생과 담임 교사, 학부모, 교장 및 담당 장학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개발원 제작의 학력 검사와 학업 태도 검사 및 지능 검사, 교사에게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주임 교사를 대상으로 교장과 장학사의 태도를 알아 보았다.

평균과 표준 편차, 변량 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 교육 체제 적용 학교에서 학생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1) 가정 변인이 환경변인 보다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2) 수업 체제와 경영 체제 적용의 충실도에서 학업성취도, 교사 변인, 교장 및 장학사의 태도 변인, 가정 환경 변인, 지역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 학습 환경 변인으로는 교장의 태도, 경영 체제의 운영, 교사의 새 교육 체제에 대한 태도, 수업 체제의 운영, 교사의 체제에 대한 이해도, 장학사의 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體育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善을 위한 基礎硏究

柳三汰, 姜信福, 기타연구보고, 1981, p.100, 한국어

1974년 이후 우리 나라에는 7개의 체육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敎育課程 개정을 위한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관심 및 변천해 가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행 체육 고등학교의 敎育課程 운영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와 고교의 학교장과 주임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얻어진 결과는,

(1) 체육 전문교과를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일반 교과는 최저 단위 시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력 고사의 성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2) 빈번한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 수업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기초 외국어 학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 연합고사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이 특기자 혜택으로 체육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기초 학력 및 일반 교과의 이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본원에서 연구한 보고서의 초록을 계속하여 싣기로 하였다.

敎育哲學의 性格과 機能

曺 和 泰
(企劃調整室 硏究員)

우리는 학교 교육의 주변에서 어떤 교사나 교장은 敎育哲學이 투철하다거나 빈약하다는 얘기를 흔히 듣게 되며, 또한 우리 나라의 교육에는 근본적으로 교육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들도 듣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敎育哲學'이라는 말——이를 일상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 철학이라 하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주장되거나 신봉되는 敎育實踐에 대한 規範的 信念體制'라 할 수 있다.

하나의 實際的 行爲(practical enterprise)로서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곧 수많은 가치선택과 결정의 과정인 동시에 그를 체계화하는 과정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의 실천 과정은 일상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 철학을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실천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무엇을 위해 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등의 교육 목적과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변을 모색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 철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답변을 敎育學의 한 探究領域으로서의 교육 철학 속에서 찾고자 기대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기대는, 일상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 철학과 교육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교육 철학 간의 차이와 間隙을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일 때, 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 밖에 얻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차이란, 간단히 말해, 일상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 철학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적 실천을 위한 철학(philosophy for education)'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교육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교육 철학은 '교육에 대한 철학(philosophy of education)'을 우선적으로 표방한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학 일반의 학문적 성격의 규정에 있어서 그것이 교육 실천을 위한 규범적 학문인가, 아니면 敎育事象에 대한 하나의 과학인가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敎育事象에 대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이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교육 철학 역시, 교육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과 선택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規範哲學이 아니라, 교육 또는 교육 이론들에 대한 철학적 고려와 검토로 그 기능을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 철학이나 예술 철학이 종교나 예술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나 예술 행위에 대한 철학적 고려와 검토로서 역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처럼 교육 철학이 교육 실천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을 표방하는 것은 교육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철학의 성격과 방법론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철학에 있어서, 20세기 이후의 현대 철학은 종래의 규범론적이며 思辨的인 理論形成으로부터 철학적 문제와 그를 둘러싼 理論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비판으로 그 성격과 기능을 변화시켜 왔다.

이른바 "哲學의 革命"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변화는 절대적 가치 판단의 基準이나 實在의 窮極的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철학자들의 오랜 소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족스런 결론도 제시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가치의 文化的·社會的 相對性을 보여주는 實證的 證據들이 社會科學的 探究에 의해 밝혀지고 經驗的 實在에 대한 探究가 自然科學에 의해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가?" "무엇이 궁극적 實在인가?"와 같은 規範論的이며, 形而上學的인 問題는 哲學的 探究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哲學을 하나의 知識 體制(a body of knowledge)가 아니라 批判과 明瞭化를 위한 하나의 활동(an activity of criticism and clarification)으로 규정하는 分析哲學이 현대 철학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철학에 있어서의 변화는 교육 철학의 학문적 성격과 探究方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으며, 현대의 많은 敎育哲學者들은 교육 실천을 위한 規範的 理論體制의 생산에 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敎育實踐의 場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범적 문제는 교육 철학자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聖域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 및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답해질 수 있는 공동의 문제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육 철학자는 이러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자체의 성격을 명료화시키며 그 문제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답변의 論理的 妥當性과 正當性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따름이다. 이와같은 현대 교육 철학자들은 '敎授', '學習', '動機', '自由', '權威', '人格', 그리고 '敎育' 등과 같은 교육적 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用語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명료화시키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에 중요한 시사를 주는 諸理論들——哲學的 理論, 心理學的 理論, 社會·政治的 理論 등——의 교육적 시사점과 그 論理的·槪念的 妥當性을 분석하며 다른 교육 이론과의 일관성과 그 정당성을 음미한다.

교육학의 한 탐구 영역으로서의 교육 철학의 성격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징지울 때, 敎育實踐家가 만약 교육 철학이 갖는 이러한 성격을 고려치 않고 현실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규범적인 해답을 구체적으로 찾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결과적으로 교육 철학 또는 교육 철학자들이 '하는 짓'이 교육 현실과 유리된 고담적인 것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실천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시해 주지 않는 교육 철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단정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교육 철학이 교육 실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러한 단정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철학은 교육적 용어들을 명료하게 분석하는 微視的인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일관된 교육학 이론의 전개를 위한 개념적 기초를 다지며, 불명료한 개념과 논리적 矛盾으로 위장된 교육 이론들을 검색해 냄으로써 교육학의 한 탐구 영역으로서의 그 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적 검토와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에 관한 제이론을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석하고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보다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 탐구와 이론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적 문제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엄밀하고 정확한 사고와 비판적인 검토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켜 주고 있으며, 교육이라는 사업과 그 실천에 종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批判的 檢討와 反省的 思考를 요구하는가를, 그리고 교육 실천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

教科書 開發의 原理*

教科書 開發의 原理와 節次

주제발표 : 韓 鍾 河

Ⅰ. 序 言

중학교 교과서는 그간 여러 차례 개편되었고, 또, 개편 때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컨대, 지식의 폭발적인 팽창(특히 과학 지식)이 주요 잇슈(issue)로 되었던 때와 全人教育(Tota being), 또는 인간 교육이 중요한 잇슈로 거론되었던 것과 같은 소위 개편 당시의 문제가 되었던 중요 잇슈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려는 데 주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잇슈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교과서에 飜案되고 있으며, 그런 과정은 바람직한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은 그런 잇슈는 이미 교육 과정 개발 작업에서 飜案된다. 교육 과정의 총론에서 1차 번안되고, 교육 과정의 교과 목표, 학년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2차 번안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 과정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교육 과정 즉,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셈이다.

교육 과정의 해석 교과서 개발 방법에는 전문가 집단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은 최소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가장 훌륭한 교과서」이어야 한다. 그러면 「훌륭한 교과서」는 누가 결정하고, 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교육 과정의 해석, 교과서의 연구 개발, 교과서의 개발 과정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教育 課程의 解釋

교육 과정, 즉 교과 과정의 해석은 교과목마다 다를 수가 있다. 우선 각 교과의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 내용의 진술 양식을 보면 교과 전문가의 전문성과 취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예를 볼 수가 있다. 즉, 어떤 교과 과정에서는 지도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용어 및 기호까지 제한하여 구체성을 띠었는가 하면(수학, 과학 등), 국어와 영어 등의 교과는 기능과 범위만을 막연히 제시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은 물론 범위와 깊이를 자유 자

* 본고는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세미나(1982.7.20)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재로 해석할 수 있는 蓋然性만을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런 해석의 상례는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몇 가지 문제점, 또는 脆弱點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적인 취향이나 체계에 너무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교과 교육의 중요성은 학문의 眞髓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은 전문인 양성 교육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啓發시키는 기초 교육이란 점에서 볼 때 지나친 학문 중심 체계의 집착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난해한 지식 나열이 되든가, 무미건조한 지식 체계가 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문 중심, 또는 지식 체계 중심의 교육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학생 수준에 맞게 어떻게 전개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아주 쉬운 학습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전문가에게 그러한 飜案 기술까지를 요구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두째, 교육 과정을 해석하는 비교적 소수 교과 전문가 집단의 문화와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문화와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을 해석하고,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교과 전문 엘리트 그룹의 문화와 교사 집단의 교과 영역의 문화라는 차이가 있다. 즉, 엘리트 그룹이 이해하고 있는 교과의 학문적인 범위와 수준은 교사의 그것과는 다르며, 엘리트 그룹이 훌륭한 지식 체계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장지도 과정에서 전문가의 문화보다는 교사의 문화가 전수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들 두 그룹의 문화 수준을 되도록 접근시켜 동질 수준의 문화가 되도록 교육 과정을 해석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해석에 교사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이며, 교과서 내용의 결정 과정에 교사의 체험과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이다.

세째,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불균형의 문제이다.

대체로 교과 전문가들은 교과 과정의 지도 내용 부분—지식 내용과 계통—만을 해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목표에 제시되고 있는,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탐구 방법……등은 교과서 내용의 결정 과정에서 의미있게 번안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상의 불균형으로 교과서의 성격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고 있다(목표 중심 내지는 내용 중심으로의 편향성).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Ⅲ. 教科書의 硏究開發

「硏究 開發型」이란 용어의 사용은 종래까지 사용하던 교과서 개발 방법과 절차, 즉 집필→심의→출판·보급의 과정을 탈피하여 연구 기관에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문교부 교과서 제도 개혁 방안(1978. 7.6 대통령 보고문서)에서부터 출발한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연구 개발 기능을 다하려면 최소한 몇 단계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교과서 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 자료 조사, 예컨대 학습자의 지적·정의적 준비성 조사, 교사의 적극 참여에 의한 교육 과정의 해석 및 번안, 자료 수집 등이 충분히 갖춰지는 단계를 가져야 한다.

두째, 교과서의 소비자인 학습자의 嗜好 學習者의 지적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현장 실험 과정(trial out)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실험 과정은 단순히 학습자의 기호뿐만 아니라 실험 학교 상황에서 그 교과서가 효용성, 적절성을 가졌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세째, 교과서 체제 제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구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제시 방법은, 사진, 삽화, 활동 설계 등을 포함해서 각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같은 지식이라도 언어의 설명체와 삽화 처리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 개발 기능의 몇 단계 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 교과서 개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

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연구 개발의 몇 가지 기본 단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 연구와 실험 연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絶對節次로서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두째, 연구 개발형 교과서가 되려면 팀웍의 여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흔히 교과서 개발은 집필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집필자 못지 않게 편집 전문가, 삽화가, 사진 전문가, 潤文 전담자, 실험 설계 전문가, 교육 심리 전문가, 실험 기기 설계 전문가 등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절대 기술을 응집할 때 올바르고 훌륭한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연구 개발 기능의 중요한 핵심은 의견 수렴 및 의사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어야 한다.

지도 내용의 취사 선택, 수정 보완 등은 개인의 취향이나 판단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증거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의사가 반드시 틀린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교육 내용은 대집단이 학습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 의견보다는 객관성이 수렴된 집단 의견의 선택이 더욱 바람직하다.

요컨대 연구 개발형 교과서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바로 보다 객관적인 방법,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Ⅳ. 敎科書 開發 過程

연구 개발형 이전의 중학교 교과서 개발 과정은 비교적 간단했다. 즉, 문교부 편찬 계획 수립 및 집필 지침 공고, 일반 출판사 교과서 시안 작성, 문교부 심사, 인쇄 및 보급이라는 간단한 절차였다.

그러나, 연구 개발형 교과서 개발 정책을 펴기 시작한 이후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체계상 과거 교과서 개발 때 보다도 진일보하였다. 즉, 현행 교과서의 검토·분석 단계를 두었다든가, 현장 학교 실험 과정을 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연구 개발이 되려면 교과서 검토·분석 단계에서의 기초 연구 및 기초 조사 보장, 현장 학교 실험의 강화(1978년의 경우 현장 학교 실험이 생략됨) 등 좀더 과학적인 과정이 되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 구상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 개발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두째, 교과서 개발 비용에 기초 연구비를 투여하는 문제이다. 이는 기초 연구 과정의 형식적 수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교과서 개발에서 요구되는 절대 기술(편찬 기술, 潤文, 삽화 및 사진제작 기술 등)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네째, 실험 결과의 자료 수집·해석·각계의 의견 종합 등을 전문적인 식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과서 개발 기관의 기능 분담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 절차상의 시간 낭비와 의사 결정 과정의 마찰을 배제할 수 있으며, 연구 개발 정책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현장 투입에 대한 사전 준비(교사 연수)와 다음 개편 주기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 개편 주기로 연계되는 활동으로서 개편된 교과서의 효용성·교육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절차를 제시하면, 교과서 연구 개발 정책에서 기초 연구, 개발 과정, 실험 평가 과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도록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충분한 시간적·재정적 지원)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개발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 절차를 예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 절차 ○표 : 문교부 주관 △표 : 담당 연구 기관 협조

절 차	분담기관 MOE	분담기관 연구기관	기 간	비 고
1. 교과서 편찬 정책 수립 ○ 과거 편찬 과정 심사 분석 ○ 현재 편찬 과정 수립 ○ 미래의 편찬 과정 수립 및 현재 편찬 결과 평가 계획 수립	○	△	1/2~1년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 과정이 주기적으로 연속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및 재정 소요 추정 및 확보
2. 기초 연구 수행 ○ 현행 교육 과정 교과서 분석 ○ 현행 교과서의 유효성 및 효과 검증 ○ 요구 분석 ○ 지적 정의적 준비성 분석 ○ 교육 과정의 목표·내용, 유의점 상세화 및 해석 ○ 교과서 체제 연구		○	1~1.5년	이 연구를 위해 별도 예산 책정이 필요함. 또는 교과서 개발비에 포함시켜 예산 책정함.
3.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시안 제작 ○ 시안 제작팀 구성 : 교과 전문가, 삽화 및 사진가, 교육 전문가, 윤문 및 편집 전문가, 자료 설계 및 제작 전문가 ○ 기초 연구 분석 검토 ○ 교육 과정 해석 결과 검토 분석 ○ 내용 상세화 선정 ○ 모델 단원 작성 검토 ○ 시안 작성	△	○	1~1.5년	편집비, 사진 및 삽화 제작비, 자료 수집 및 제작비(특히 과학, 실과, 미술 등)를 현실화하여 지원함.
4. 현장 실험 교사 연수, 시행 자료 수집 및 문제점 분석	△[8]	○	1년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5. 수정 보완 (수정 및 보완)		○	0.5~1년	
6. 문교부 최종 심의	○	△	0.5년	
7. 인쇄 공급 (인쇄 및 공급)	○			
8. 교과서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2~3년	다음 주기를 위한 후속 조치와 예산 확보 지원이 필요함.

V. 結 言

교과서의 질과 내용은 그것을 개발하는 데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얼마 만큼 누적된 기술과 방법이 투입되었느냐에 따라 교과서의 질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몇 차례의 교과서 개편 작업을 수행하여 왔지만, 그동안 과연 어떤 체험과 기술이 축적되었는지는 궁금하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주기에는 보다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教科書 開發의 技術的 側面

주제 발표 : 全 泳 杓

Ⅰ. 序　　言

교과서란 교육을 위하여 학교의 교과용으로 편찬한 도서를 말한다. 도서는 곧 책으로서, 책은 외형과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외형이라 함은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며, 내용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외형은 표지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을 만드는 재료와 그 안에 담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활자, 사진, 삽화 등이 편집·인쇄의 과정을 통해 지면에 나타난 상태의 전부라 말할 수 있다.

책을 만드는 데는 기획·구성의 지식에서부터 레이아웃의 지식, 타이포그라피의 지식, 素材의 지식, 사진·판화 및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지식 등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최근 디자인 분야가 개발되어 책의 시각적인 장정에서부터 내용의 나열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어 에디토리얼 디자인(editorial Design)이란 새 용어가 나오게끔 되었다.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란 것은 「신문, 잡지나 책자 형식의 인쇄물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한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책 표지의 장정, 레이아웃, 타이포그라피(typography), 일러스트레이션, 지질, 인쇄의 선택 등 출판물 전체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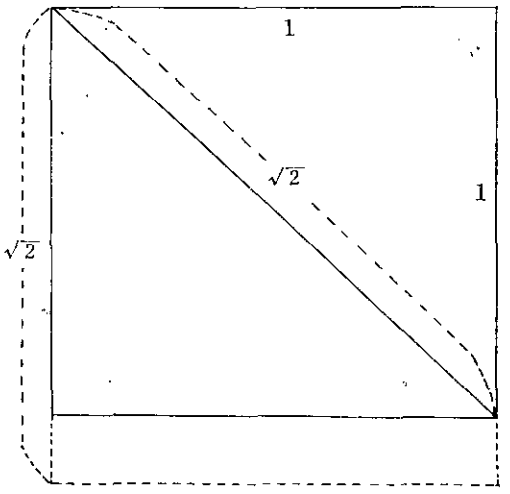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도 일부 잡지 또는 인쇄물 편집에 이러한 디자인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교과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속화하려는 사회적·과학적 요구에 부응한 새 편집·제작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교과서의 크기를 비롯하여 활자의 모양, 지면의 여백, 그리고 사진과 삽화의 처리, 종이의 색깔 등 책의 외형적 측면, 즉 에디토리얼 디자인의 각도에서 현교과서를 비교·검토, 새로운 편집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Ⅱ. 教科書의 모양과 크기

1. $\sqrt{2}$四角形과 黃金分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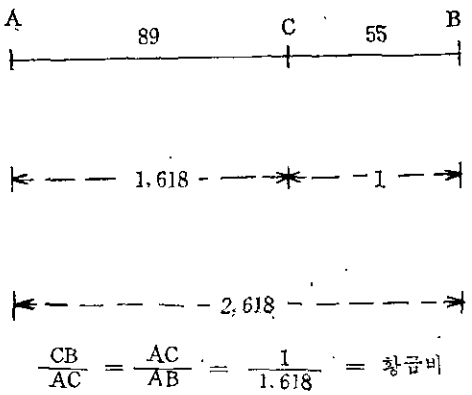
일찌기 독일의 오스트발트(F. Ostwald)는 황금 분할을 연구한 끝에 1대 $\sqrt{2}$의 관계를 가진 사각형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의 한 변에 대해서 그 대각선의 길이를 다른 1변으



〈그림—1〉 $\sqrt{2}$ 사각형

로 하는 사각형을 $\sqrt{2}$사각형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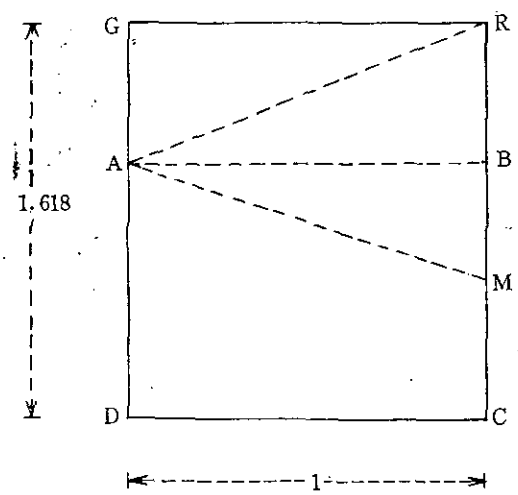
$\sqrt{2}$사각형의 특징은 그 장변을 2등분하면 다시 $\sqrt{2}$사각형이 된다.



〈그림—2〉 황금 분할의 길이

황금 분할(Golden Section)은 B.C 300년 경 알렉산드리아의 기하학자인 유클리드(*Euclid*)에 의하여 제창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직선을 분할할 때 1 : 1.618의 비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황금 분할에 의해 만들어진 구형을 황금비 구형이라 하는데, 이것은 폭은 정사각형의 1면이며, 길이도 사각형의 $\frac{1}{2}$면과 정사각형의 반분에서 대각선을 합한 길이이다.



〈그림—3〉 황금비의 구형

〈그림-3〉은 정사각형 ABCD의 BC선상에 2등분점 M을 잡고, M을 중심으로 하고, MA를 반경으로 하는 원을 그려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R을 정한다. 점 R을 DC와 평행되게 연장하여 AD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G라 할 때 DCGR의 구형을 황금비의 구형이라 한다.

2. A判과 B判의 規格

한국 공업 규격(KIS)은 1977년 인쇄 용지의 재단 치수를 A열(判列)과 B열로 나눠 정해 놓았다. 이 칫수는 A열 0번을 841mm×1,189mm=1m², B열 0번을 1,000mm×1,414mm=1.414m로 하여 폭과 길이가 1 : $\sqrt{2}$의 비례가 되게 한 것이다.

KS의 A판, B판은 모두 0번의 $\frac{1}{2}$을 1번으로 하고, 이하 10번까지 각각 $\frac{1}{2}$씩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있는데, 모두 $\sqrt{2}$사각형으로서 닮은꼴로 되어 있다.

소위 전지(全紙)라 하는 원리는 A열에서는 A열 1번보다 약간 큰 치수의 A열 본판(本判) 625mm×880mm=0.55m²와 B판에서는 B열 1번보다 약간 큰 치수의 B열 본판 743mm×1,050mm=0.78m²가 규격 원지이다. 이는 모두 국제 규격(ISO)에 따른 것으로 국제 규격에서는 A계열을 주계열로, B계열을 보조 계열로 삼고 있다.

책자 인쇄는 이 규격 원리를 이용하면 국전지(菊全紙), 4·6전지를 쓰는 것보다 책자의 크기는 좀 작아지지만 종이의 허실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규격 용지를 생산할 기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책자 인쇄는 국전지와 4·6전지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3. 바람직한 교과서의 크기

현재 사용 중인 우리의 교과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음악·과학·미술·사회과 부도 등, 4.6배판(188mm×254mm)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판 크기(148mm×210mm)로 되어 있다.

교과서의 국판 크기는 엄격히 따져서 KS의 A5판에 해당된 크기이다.

참고로 국판 대 A5판, 4·6배판 대 B5판의 크

기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가 로	세 로
국 판	150mm (5.0寸)	218mm (7.2寸)
A5 판	148mm (4.9寸)	210mm (6.9寸)
4·6배판	188mm (6.2寸)	254mm (8.4寸)
B5 판	176mm (5.8寸)	250mm (8.3寸)

※ 菊判 全紙
636mm×939mm
(2.1尺×3.1尺)
A列 本判
625mm×880mm
(2.06尺×2.9尺)
※ 4.6 全紙
788mm×1.091mm
(2.6尺×3.6尺)
B列 本判
743mm×1.050mm
(2.45尺×3.46尺)

이와 같이 국판 전지를 사용하여 국판 책자를 만들 때 그 기본 치수는 152mm×218mm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의 길이를 221mm(7.3寸), 또는 225mm(7.4寸)까지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판 전지로 책의 길이를 225mm 이하로 냈을 경우는 적어도 4mm×152mm=608mm²의 종이를 잘라 버리게 된다. 이런 허실을 없애기 위해 일반 도서들이 국판 전지로 마름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인 152mm×225mm의 국판 크기의 책을 만드는 경향이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4·6전지로 국판의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국판 교과서의 크기는 A열 본판 규격 용지가 생산되지 않는 한 국판 최대 치수인 152mm×225mm의 크기가 좋다고 판단된다. 이 크기는 종이의 허실도 적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1 : 1.480으로서 황금비의 구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책의 크기는 신체적 조건과 관련시킬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초·중·고등 학생의 구분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할 것이다. 즉, 초·중등 학교는 A5판, 중학교는 국판(A5판), 고등 학교는 B5판(현 4·6배판)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연구해 봄직하다.

Ⅲ. 교과서의 編輯

책의 내용 배열 순서는 각국의 전통과 습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우리 나라의 일반 도서의 내용 편집 배열을 보면 내표지→화보→머리말→차례→본문→찾아보기→판권지의 순서로 되어 있고, 중학교 교과서 중 3학년의 중학 국어·사회·수학·영어의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중학 국어 : 태극기→국민 교육 헌장→화보→내표지→차례→본문→부록→판권지

사회 : 국민 교육 헌장→화보→내표지→머리말→차례→본문→부록→찾아 보기→판권지

수학 : 국민 교육 헌장→화보→내표지→머리말→차례→본문→부록→찾아 보기→판권지

영어 : 국민 교육 헌장→화보→내표지→머리말→차례→본문→찾아 보기(Word List)→판권지 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어과 만이 머리말이 없는 대신 태극기가 게재되었을 뿐, 다른 과목은 모두 같은 순서인데, 일반 도서와 비교할 때 내표지가 화보 다음에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물론 일반 책도 화보가 내표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더러 있으나 옥스포드 룰[1]과 같이 앞표지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화보 앞으로 내표지를 가져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내표지가 별지가 아닌 본문 지질과 동일한 때는 인쇄·제본상 현재의 순서가 부득이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등 교과서는 모조지의 별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교과서는 일러 두기를 두고, 그리고 내표지를 본문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일러 두기가 없고 내표지를 별지로 인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교과서 편집 배열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편집·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1) 옥스포드 룰은 ① 앞표지 ② 권두화 ③ 내표지 ④ 판권지 ⑤ 헌사 ⑥ 경오표 ⑦ 머리말 ⑧ 본문 차례 ⑨ 도판차례 ⑩ 약어표 ⑪ 중간표지 ⑫ 본문 ⑬ 부록 ⑭ 주 ⑮ 용어풀이 ⑯ 참고문헌 ⑰ 찾아 보기 순으로 되어 있다.

Ⅳ. 紙面의 餘白과 마진

책은 페이지와 페이지의 연결로 이어지며, 한 페이지는 글씨와 사진·삽화 등 인쇄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쇄된 부분을 판면이라 한다면 그 바깥, 즉 欄外는 마진(margin)이라 할 수 있다. 마진의 美的 처리는 가독성(legibility)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지면의 세련미를 더하는 독서 의욕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이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책의 마진은 동양과 서양이 대체로 상반되게 처리하여 왔다.

서양의 경우 점증적 마진(progressive margins)을 이용하는데 안쪽, 즉 접는 쪽(inner margin)을 가장 좁게 하고, 다음으로 위쪽(head margin), 바깥쪽(outside margin), 아래쪽(tail)을 가장 넓게 하고, 기수 페이지에서는 시계 바늘 방향으로, 우수 페이지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점증하게 하는 것과는 반대로, 동양권인 우리 나라와 일본은 위쪽을 넓게 하고, 아래쪽을 좁게 하고 있는데 최근의 가로 체재를 갖춘 책에서는 양서와 같이 위쪽을 아래쪽 마진보다 좁힌 책들을 볼 수 있다. 이 마진 처리는 가로 짜기와 세로 짜기의 체제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현재 우리의 교과서는 가로 짜기 체제이므로 서양의 마진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밑이나 옆을 잡아 보며, 또 여백에 노트를 해야 하므로 바깥쪽과 아래쪽이 넓으면 그 만큼 편리하기 때문이다.

Ⅴ. 가로짜기 활자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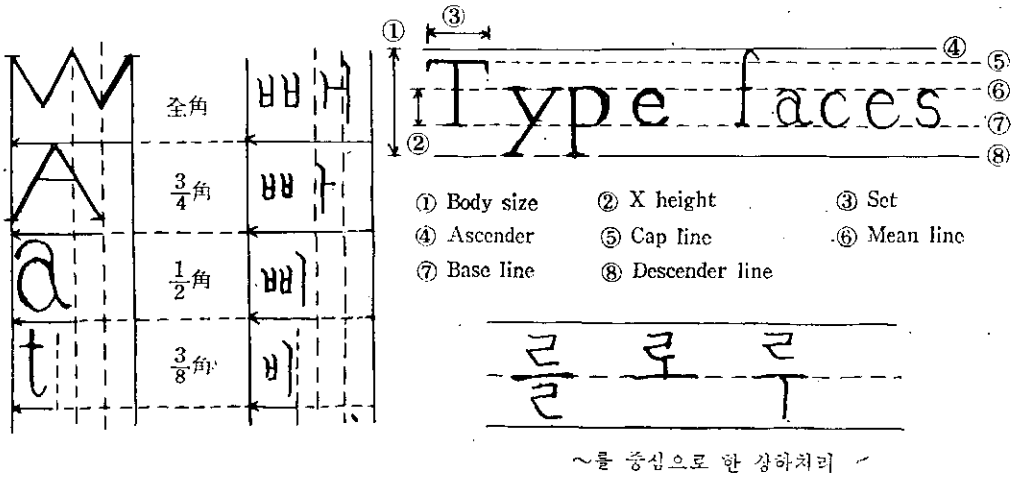
우리의 교과서는 가로 짜기로 되어 있는데, 活字는 국어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세로짜기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가로짜기의 활자는 종전 세로짜기에서 한글의 「ㅏㅑㅓㅕ」의 내려 긋는 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획이 많은 자음과 결합할 때 상하의 일직선상의 연결을 개의치 않고 글씨의 획에 따라 좌우로 조절할 경우(「빼」「께」자) 획 사이가 없어 읽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

활자의 폭과 길이는 10 : 10의 정방형이지만, 조판된 1행을 놓고 볼 때는 마치 글자의 길이가 짧고 옆이 길어 보이므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이러한 활자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씨에 따라 자폭이나 길이를 달리하는 로마자와 같은 활자의 개발도 연구해 봄직하다.

한글에서 획이 가장 많은 것은 세로 획으로는 「빼」(세로 6획)자이고, 가로 획으로는 「를」(가로 7획)자이다. 이와 같이 많은 획을 로마자와 같이 활자의 크기를 달리한다면 획 사이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4 참조〉.



〈그림—4〉 로마 활자의 원리를 적용시킨 한글체

Ⅵ. 寫眞 및 挿畵와 紙質

1. 寫眞과 挿畵의 選定·配置

교과서의 삽화나 사진은 문자 이외의 교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삽화나 사진은 훌륭한 자료의 기능과 내용의 기능을 제시하는 학습 요소로서 학습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하며, 삽화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① 삽화의 표현 방법(만화, 그림, 사진, 도표, 통계, 도안 등)의 선택이 적절한 것인가?

② 본문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내용을 담은 것인가?

③ 표현한 내용이 명료하고 구체적인가?

④ 교과 전문가와 협의를 거친 것인가?

⑤ 근거가 확실한 내용인가?

⑥ 표현 방법이 그릇되어 다른 그림으로 오해받을 염려가 없는가?

삽화는 내용면에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제작할 수 있겠으나 지면 위의 배치, 삽화 자체의 구도 등 디자인의 요소가 가미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조립·구성은 문자나 문장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즉 삽화 설명도 및 사진 등이 보다 잘 읽히고, 보다 정확하게, 빨리 이해되도록 배열해야 하며, 그 배열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평면에 있는 요소를 배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조건은 대비(contrast), 균형(balance), 배분(proportion), 율동(rhythm), 통일(unit)의 다섯 가지이다. 이것은 곧 도안의 기준이며, 레이아웃의 기준이기도 한데, 교과서의 사진 크라핑(cropping)이나 배열, 삽화의 처리 등은 이러한 기준에 맞게 편집되어야 할 것이다.

2. 종이의 질과 색깔

인쇄된 종이와 잉크의 반사율 및 컨트래스트는 활자의 읽기 쉬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최소 시각(읽을 수 있는 한계)은 2가지 조건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나라 중등 학교의 경우 미술·음악을 제외한 국어·수학·사회·영어 교과서의 본문은 708/m²의 미색 갱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및 자유중국의 미색·백색의 중질지 또는 백상지, 그리고 미국, 독일의 미색 모조지 내지 아트지 사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도 향상된 오늘날의 경제 여건을 감안, 중질지 이상의 지질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지의 색깔은[2] 미색 또는 크림색이 좋을 것이다.

Ⅶ. 結　　言

교과서는 창조물인 동시에 그 소유는 학생들에게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그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판 디자이너 등 전문 요원을 양성해야 하며,

두째, 관련 학문의 활용을 위한 교육 학자, 국어 학자, 심리 학자, 안과 의사, 디자이너 등과 유대를 강화해야 하고,

세째, 순간 노출기, 사진 식자기 등 출판 디자인에 관한 실험 기재들이 도입되어야 하며,

네째, 한국교육개발원을 보다 강화하여 교과서 개발을 전담·연구할 전문 연구소의 기능을 높이거나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해야겠으며,

다섯째, 이상 4개항을 운용할 재정적 힘이 뒷받침될 때 교과서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리 : 연구자료실장 최 윤도〉

2) 藤森善貢, 「出版技術入門」, pp. 197-198. 종이의 색에 따른 반사율 및 깜박거림을 연구의 결과에 의거.

敎育에 있어서 컴퓨터의 活用

——C.B.E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자료실

Ⅰ. 序

지난 30여 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의 발달은 컴퓨터 공학의 혁신을 가져 오게 함으로써 컴퓨터의 활용은 과학 분야는 물론 경영·행정·의학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1960년 초 Time Sharing 시스템(인간과 컴퓨터와의 대화 시스템)의 개발을 계기로 교육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개별화 교수의 자동화에 목적을 둔 교수 활동에 이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개별화 수업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 등의 교육 여건 아래서 기존의 교수 매체를 이용한 교수 방법으로는 개별화 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많은 교육 기관에서는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개별화 수업의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그 첫 시도로 PI(Programmed Instruction)가 등장하였으나, 이것은 교수를 위해 단지 기계를 이용한다는 데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C.B.E(Computer Based Education)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에 있어서 C.B.E 시스템이 앞으로 교육 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의문스러우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C.B.E 시스템의 개요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C.B.E 시스템의 개요

C.B.E 시스템은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집단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업 활동을 컴퓨터를 중심으로 자동화·개별화한 것으로 교육·훈련을 뜻한다. 이것의 특성은 C.B.E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따라 기능적·물리적 특성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기능적 특성은 두 개의 기본 요소인 C.A.I (Computer Aided Instruction)와 C.M.I(Computer Managed Instruction)로 대별된다.

CAI는 컴퓨터 보조 수업으로, 주로 '질문' 항목과 '답' 항목으로 짝지어져 있는 교수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학습하고 일정한 학습이 끝난 후에는 단원별, 또는 전체적인 평가를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는 문제로 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다 더 학습해야 할 부분이나 내용과 참고 문헌을 제공받기도 한다.

CMI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으로 수업의 전개 과정 중 주로 形成評價와 보충 수업의 처방을 컴퓨터로 한다. 이때 평가는 절대기준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의 결과로 완전 습득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동형검사로 재평가를 받거나 어떤 자료로 어떤 학습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할 것인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이 CAI와 다른 점은 각 단원별 초기 수업 단계가 개별적으로 또는 강의를 통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물리적 특성은 C.B.E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3가지 기본 요소인 기계적·지식적·인적 요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기계적 요소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 웨어 장치와 터미날에 접속시킬 수 있는 부착 장치를 들 수 있다. 컴퓨터 하드 웨어에는 연산과 통제를 하는 중앙 처리 장치와 프로그램과 학습 자료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 장치, 기억용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구성된다. 부착 장치로는 문자나 그림이

영상이 되는 CRT(Cathode Ray Tube)와 그래픽 터미날(Graphic Terminal) 음성의 녹음 및 재생 장치(Audio Device), 기계적 발생장치(Speech Synthesizer), 필름 투사장치(Film Projector)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녹음기, TV 등 다중 미디어 장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두째, 지식적 요소는 C.B.E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 웨어는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지는 교수 자료인 교수 프로그램과 교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수 프로그램을 「코스웨어」라고 한다. 코스웨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C.B.E 터미날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여 여러 교육의 기능(지식 전달, 반복 및 연습, 형성평가 및 목표 도달평가)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교과서, 노트, 진도표, 성적표 등이 모두 코스웨어에 있을 뿐더러 수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 및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세째, 인적 요소는 직접적인 요소로 C.B.E 시스템을 통해 학습받는 학습자, 주어진 과목의 진행을 맡는 교사, 코스웨어의 저작을 담당하는 저자, 코스웨어이와의 C.B.E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그것이다. 간접적인 요소는 코스웨어 개발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 교육학이나 방법론의 연구가, 컴퓨터를 운영해 가는 오퍼레이터도 간접적인 인적 요소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C.B.E 시스템은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크고 작은 시스템이 개발·보급되어 상업화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大型인 PLATO 시스템과 中型인 TICCIT 시스템이 대표적인 것이며, DECAL, ASET, IDF와 같은 小型 시스템도 개발·보급되어 학교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동될 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국가의 보조를 받고 연구·개발·보급되고 있는 PLATO 시스템과 TICCIT 시스템을 중심으로 앞에서 논의된 C.B.E 시스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PLATO 시스템

PLATO(Programmable Logic For Automated Teaching Operation)시스템은 일리노이즈 대학교 C.B.E 연구소(CERL)에서 1959년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1970년에 C.D.C(Control Data Corp)와의 계약에 따라 상업화 과정을 거쳐 〈표-1〉과 같이 발전되어 오늘날 전세계에 터미날 數만 1,10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형 C.B.E 시스템이다. 이 방법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코스웨어가 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 本體(CYBER)와 터미날(IST Ⅱ)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거리의 이용자도 활용이 가능하게 통신망으로 연결된 情報流通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컴퓨터 본체는 PLATO 시

〈표-1〉 **PLATO의 변천 과정**

시스템 / 내용	PLATO Ⅰ	PLATO Ⅱ	PLATO Ⅲ	PLATO Ⅳ	PLATO Ⅴ
연 도	1959—1963	1963—1965	1965—1973	1971—현재	1977—현재
설치된 컴퓨터	ILLIAC I	CDC 1604	CDC 1604 NCR 160	CDC 6400 CYBER 73—24	CDC 6500 CYBER 73—24
터 미 날 수	3	3	71 (20대 동시 가동)	1,000	1,100 (PLATO Ⅳ포함)
코스웨어시간수	2	25	2,500	5,000	7,000
주요 자금 출연기관명	미국 육·해·공군	미국 육·해·공군	미국 국방성·교육성, CDC, HEW, NSF, Owens Illinois,	NSF, HEW, Owens Illinois, 일리노이주 정부. ARPA, ONR, USAF, AID, CDC	NSF, 일리노이 주정부, NIE, 노동성, ARI, CDC.
시스템 발달 특징	반복 및 연습 프로그램 제공	복식사용가능	TUTOR 언어개발 Time Sharing 처리 가능	프라즈마 디스플레이 터미날 개발	Stand-Alone 마이크로 터미날 사용

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CYBER 기종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터미날은 대화식의 프라즈마 디스플레이(Plasma-Display)와 컴퓨터 그래픽 터미날이 있다. 프라즈마 디스플레이 터미날은 프라즈마 영상화면과 전자식 키보드를 갖추고 있어 항상 학습자에 의해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해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원거리의 터미날 이용자를 위해 通信線(Data Line)에 의한 학습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케 하는 時分割(Time Sharing)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入力된 수업 자료의 Compile을 할 수 있는 Compiler와 실행을 할 수 있는 Executor가 있다. 시분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터미날에 있는 이용자와 컴퓨터 간의 능률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감독·통제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컴파일러는 入力된 교수 자료를 컴퓨터가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며, 바뀌어진 언어에 따라 실행 가능케 하는 것이 Executor이다. 모든 入力되는 교수 자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감독·통제를 받고 Compiler와 Excutor의 과정을 꼭 거치게 된다.

코스웨어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교수 자료로써 터미날 화면에 글자·문장·선·도표·그림 등으로 나타난다. 영상으로 나오기 전의 코스웨어는 커리큘럼 파일, 모듈파일, 그룹 파일의 체제하에서 구성되어 있고, 커리큘럼 파일은 15개 코스로 구성되며 하나의 코스는 28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각 모듈은 다시 60개의 Instruction Unit로서 구성되어져 있다.

2. TICCIT 시스템

TICCIT(Time-Shared Interactive Computer-Nontrolled Information Television)는 1972년 초 CSF 기금으로 MITRE Corp., Bringham Young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의해 지방 대학의 「영어」와 「수학」 교과 등 컴퓨터에 의해 학습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中型 C.B.E 시스템이다. TICCIT 시스템은 PLATO 시스템과 동일하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코스웨어에 약간씩 차이 점이 있다.

하드웨어는 두 대의 미니 컴퓨타와 부속장치로 되어 있다. 하나의 미니 컴퓨터는 교수 자료와 학생들에 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주(主) 기억 장치로 이용하며, 다른 하나의 미니 컴퓨터는 연결된 터미날을 운영·관리하는데 사용된다. 부속장치는 자기 테이프, 카드리더기, Audio 시스템, 그래픽, TV 등 다중 매체 장치와 연결시키게 한다.

소프트웨어는 교수 자료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적용 프로그램, 교수 자료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수 자료의 入力 및 出力을 가능하게 한다.

코스웨어는 단원, 장, 절의 단계로 나누어져 위계적인 내용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는 절부분에서 이루어진다.

Ⅲ. C.B.E 시스템의 敎育的 效果

C.B.E 시스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Dr. Neil Ashby는 C.B.E 시스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에 흥미를 갖고 임하므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전통적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당황감이나 공포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반복하여 설명하는 노력을 경감시켜 특정 학생의 개인 지도를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

R.D Hess와 M.D Tenezabis는 컴퓨터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다른 매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Grubb와 Seltridge도 학생들은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양의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C.B.E 시스템에 의한 교육은,

첫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개별적인 속도로 학습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종래 교사들의 반복 교수를 C.B.E 시스템이 담당하므로써 개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세째, 전통적인 교수 방법 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다는 利點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結

C.B.E 시스템은 개별화 수업의 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써 完全學習의 성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C.B.E 시스템이 교수·학습 활동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① 전자 및 컴퓨터 공학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 성능의 증진 ②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한 가격 절하 및 대중화 ③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방법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C.B.E 시스템은 개별화 교수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의 본질적 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C.B.E 시스템의 시범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1대, 성동 기계공업고등학교에 2대, 경기고, 경기여고, 무학여교, 서울고에 각각 1대 등 총 16대가 연결·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Ohm의 법칙, 문장조립에 따른 Animation 등 한국화된 코스웨어가 개발되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81년 8월부터 PLATO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

〈64페이지에서 계속〉

퇴직연도	직급	성명	재직기간	현근무처
1982	연구원	김만길	80. 6. 9~82. 8.17	
	연구원	배호순	79. 2. 1~82. 9. 2	미국 뉴욕 주립대 유학
	연구원	고경석	81. 2. 1~82. 9. 2	카나다 유학

방송직

퇴직연도	직급	성명	재직기간	현근무처
1976	5급방송원	이창환	76. 3. 1~76. 4. 2	K.B.S
	4급방송원	유성웅	75. 1.20~76.12. 6	한국교육동화
1977	4급방송원	조병준	76. 3. 2~77. 6. 4	여수양조장
1978	4급방송원	김재웅	76. 3. 1~78.10.26	대우건설
	3급방송원	최승학	75. 8. 1~78.12. 6	사우디아라비아 빈넬회사
1979	4급방송원	정훈상	73. 5.21~79. 1.21	삼익건설
	5급방송원	최순심	77. 3.18~79. 4. 6	계명대 대학원(재)
	3급방송원	유용환	74. 5. 9~79. 5.11	국립극장
	3급방송원	하성해	74. 5. 9~79. 7. 9	교통안전관리공단
1980	4급방송원	김효정	76. 9. 2~80. 6.17	도미
	4급방송원	김종일	78.10. 5~80.12. 8	예술원
1981	4급방송원	김난숙	76. 2. 1~81. 4. 8	재미
	3급방송원	김명자	73. 5.21~81. 7. 2	재미
	4급방송원	이근영	77. 3.18~81. 6.22	재미
	5급방송원	조재옥	81. 8.11~81.10.31	K.B.S
1982	5급방송원	유혜령	81. 4. 4~82. 5.17	이대 대학원(재)
1978	3급방송원	김태성	72.12.22~78. 6.26	홍우전자

8월 10일자로 발행된 교육개발 제4권 4호에 "본원 발전에 기여하고 이임하신 분들"의 명단(임원·연구직·방송직)을 실린 바 있으나 주소와 현 근무처의 확인이 불충분하여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었읍니다.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들의 명단을 정정 또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관리직 명단 중 1978년 이후 이직자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 離職者 名單 □

本院 發展에 寄與하고 離任하신 분들

임 원

1982. 9. 30 현재

퇴직연도	직 급	성 명	재 직 기 간	현 근 무 처
1980	원 장	이 영 덕	72. 8.23~80. 9.19	서울대
1981	부 원 장	남 억 우	73. 2. 1~81. 2.24	인천교대
1976	상 임 감 사	송 만 영	72. 9. 1~76.12. 5	
1980	상 임 감 사	김 광 호	79. 4.12~80. 7.19	

기술직

퇴직연도	직 급	성 명	재 직 기 간	현 근 무 처
1973	3 급 기 술 원	이 주 연	73. 4. 2~73. 9.17	K·B·S
	4 급 기 술 원	나 종 식	73. 4. 2~73. 9.18	미국 이민
1974	4 급 기 술 원	손 홍	73. 2.12~74. 1.17	홍우전자(주)
	4 급 기 술 원	이 수 국	73. 4. 2~74. 1.21	
	4 급 기 술 원	정 태 열	73.12.21~74. 3. 4	
	4 급 기 술 원	조 인 구	73. 4. 2~74.12. 6	불이무역
1975	4 급 기 술 원	조 진 희	73.12.21~75. 1.28	한진(주)
	4 급 기 술 원	김 대 현	74. 2. 1~75.12.31	태평양 건설(주)
1976	4 급 기 술 원	태 진 호	74. 5. 1~76. 2.19	대림산업
	4 급 기 술 원	김 명 구	74. 9.23~76. 4.30	현대자동차(주)
	3 급 기 술 원	정 기 용	76. 3. 3~76. 6.30	
	4 급 기 술 원	정 준 호	75. 8. 1~76. 8. 7	대한항공 비행정비대
	5 급 기 술 원	김 성 철	75. 9. 1~76. 9.10	현대자동차(주)
	5 급 기 술 원	조 태 오	76. 3. 3~76.11.26	K·B·S
1977	3 급 기 술 원	엄 태 성	75. 7. 1~77. 2.20	한국전기(주) (725-5415)
	5 급 기 술 원	장 용 석	76. 6.25~77. 4. 6	해태유업(주)
	4 급 기 술 원	김 기 배	74. 9. 3~77. 6.14	
	3 급 기 술 원	정 인 수	77.10. 1~77. 7. 7	서울교역
	4 급 기 술 원	김 광 진	75. 8. 1~77.10.31	
	5 급 기 술 원	김 익 현	76. 3. 3~77.10.31	
	4 급 기 술 원	신 봉 수	75.11. 1~77.10.31	
	4 급 기 술 원	김 상 철	77. 1. 1~77.10.31	제천자동차(주)
	5 급 기 술 원	김 웅 래	77. 1. 1~77.10.31	
	5 급 기 술 원	변 형 박	77. 1. 1~77.10.31	광명토건(주)
1978	5 급 기 술 원	신 현 국	75. 9.19~78. 3.20	K·B·S
	4 급 기 술 원	박 종 규	75. 7. 1~78.12. 6	M·B·C (724-2601)
	4 급 기 술 원	이 영 철	77. 4.11~78. 4.11	M·B·C
	4 급 기 술 원	박 균 삼	75. 8. 1~78. 4.11	한국원자력연구소
	4 급 기 술 원	백 승 화	75. 8. 7~78. 8. 8	해남빌딩 변전실
	4 급 기 술 원	김 석 근	75. 1.17~78.10.12	새한자동차(주)
	2 급 기 술 원	박 봉 원	73. 3. 6~78.12.31	K·B·S
	3 급 기 술 원	이 주 형	75. 3. 6~78.12.31	K·B·S
	3 급 기 술 원	변 상 현	74. 9.23~78.12.31	K·B·S
	4 급 기 술 원	김 정 호	73.12.31~78.12.31	K·B·S

퇴직연도	직 급	성 명	재 직 기 간	현 근 무 처
	4급기술원	전 인 조	74. 5. 1~78.12.31	K·B·S
	4급기술원	오 평 환	73.12.31~78.12.31	K·B·S
	4급기술원	최 영 준	74. 9. 3~78.12.31	미국 이민
1978	4급기술원	최 효 섭	73.12.31~78.12.31	K·B·S
	4급기술원	이 해 영	74. 5. 1~78.12.31	K·B·S
	4급기술원	이 철 준	73. 2. 1~78.12.31	울산공대
	4급기술원	현 일 범	76. 3. 3~78.12.31	K·B·S
1979	3급기술원	우 승 환	73.12.31~79. 1. 9	동양정밀
	4급기술원	십 태 식	75. 8. 1~79. 8.16	한양주택
1980	5급기술원	김 종 한	77. 4.11~80. 4.11	한양대 시청각 교육원
	5급기술원	정 옥 균	77. 5. 4~80. 4.11	한양대
	5급기술원	이 영 성	76. 1.26~80. 6. 5	우성냉동
	5급기술원	유 홍 진	80. 6.11~80. 7.10	안전공사
	3급기술원	장 두 형	75. 1.17~80. 8.16	
	4급기술원	민 웅 기	78. 9. 1~80. 6. 2	
1981	5급기술원	원 동 균	81. 2. 9~81. 5.23	K·B·S
	5급기술원	전 종 기	79. 9. 3~81. 9.16	
	4급기술원	조 홍 상	80.10.15~81.10.15	
	5급기술원	박 영 길	81. 3. 5~81.10.15	
	5급기술원	이 정 섭	81. 3. 5~81.11. 9	후로꾸전자(주)
	4급기술원	방 현 준	75. 8. 1~81.10.22	전파상(파주)
	5급기술원	강 동 균	81. 2. 9~81.12. 2	K·B·S
	4급기술원	김 종 철	77. 5. 4~81.12.31	
1982	3급기술원	이 명 수	81. 7.15~82.3. 18	M·B·C
	4급기술원	최 덕 수	81. 2. 9~82. 7.22	삼성전자

관리직

퇴직연도	직 급	성 명	재 직 기 간	현 근 무 처
1973	2급관리원	송 세 환	72.10. 1~73. 7.16	의정부 중학교
	2급관리원	김 병 국	72.10. 1~73.12.27	
1974	4급관리원	민 장 홍	72.10. 1~74. 7. 6	K·B·S
1975	4급관리원	이 현 실	74. 3. 1~75. 5.12	
	4급관리원	임 무 경	74. 9.23~75. 8. 7	
	4급관리원	유 승 열	72. 9. 1~75.10. 4	동산토건
	4급관리원	목 영 찬	74. 3. 1~75.10.31	미국 이민
	4급관리원	안 재 렴	74. 2. 9~75.12.31	대우실업
1976	4급관리원	이 재 구	73. 4. 2~76. 3.22	
	3급관리원	윤 보 원	73. 4.13~76. 4. 6	한서상사(주)
	5급관리원	송 인 욱	74.10. 1~76. 5.18	
	3급관리원	김 성 택	73. 7.16~76.11. 5	계원예고
	4급관리원	정 성 근	75.11. 1~76.12. 7	
1977	3급관리원	황 돈 규	73.10. 1~77. 3.15	
	3급관리원	이 지 창	75. 1.17~77. 8. 5	
	4급관리원	구 정 모	73.10. 8~77. 9. 5	한국화장품
	5급관리원	황 선 희	76. 5. 3~77.10. 5	

연구직(정정)

퇴직연도	직 급	성 명	재 직 기 간	현 근 무 처
1972	책임연구원	김 동 철	72. 9. 1~72.10.31	이화여대
1973	책임연구원	이 상 주	72. 9. 1~73. 4.30	강원대
	연구원	강 영 삼	73. 3.19~73.12.31	국민대
1974	연구원	김 만 기	72. 9. 1~74. 4.30	
	책임연구원	김 영 호	72.11. 1~74. 9. 4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	안 창 일	73.10.29~74.12.20	국민대
1976	연구원	이 상 훈	75. 2.17~76. 2.25	시라큐스대 유학
	연구원	이 문 원	74.10. 7~76. 9. 1	일본 유학
	연구원	신 동 로	74. 5. 1~76. 3.25	전북대
	연구원	고 영 희	75. 5.26~76. 3.31	귀국(본원 교육과정 연구부)
	연구원	조 대 희	74. 5. 1~76. 4. 7	
1977	연구원	이 영 자	74. 7.16~77. 3. 5	미국 유학
	연구원	김 종 식	74. 5. 1~77. 3.15	
	연구원	나 동 진	73. 3. 1~77. 8.10	전북대
	연구원	윤 현 섭	76. 5. 1~77. 9. 6	귀국
1978	연구원	이 광 표	72.10.10~78. 7. 8	경옥상사(도서출판)
	연구원	이 정 애	76. 5.10~78. 3. 9	
	연구원	강 경 석	74. 5. 1~78. 5.15	삼성물산
	연구원	심 금 숙	74. 5.20~78. 7. 7	귀국
	연구원	박 재 문	72.10.10~78. 7. 7	충북대
	연구원	유 광 수	77. 9. 5~78. 9.26	
1979	주임연구원	이 혜 선	73.11.14~79. 3. 8	전주대
	연구원	한 경 자	72.10.10~79. 3.12	캔사스 주립대 유학
	주임연구원	송 용 의	73. 3. 1~79. 3.20	인천교대
	연구원	한 미 라	77. 1.24~79. 5.11	귀국
	연구원	신 차 균	76.10. 1~79. 8.25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	박 종 렬	77. 1. 1~79 .8.25	귀국(본원 교육과정연구부)
1980	연구원	박 경 란	79. 2. 1~80. 2.16	
	책임연구원	김 종 복	79. 2. 1~80. 4. 4	
	연구원	정 민 식	76. 8.20~80. 4.10	
	주임연구원	정 진 환	72.10.10~80. 2.28	공주사대
	책임연구원	김 선 종	79. 4.16~80. 2.29	
	연구원	이 준 옥	79. 4. 1~80. 3. 4	숭전대
	수석연구원	신 극 범	72. 9. 1~80. 3.17	문교부
	연구원	안 병 하	79. 2. 1~80. 8.16	미국 유학
	연구원	신 현 성	76.10. 1~80. 8.28	아하이오주립대 유학
	연구원	단 현 국	79. 4. 1~80.12.16	아메리칸 인터내셔날대 유학
	연구원	오 혜 영	79. 2. 1~80. 7.12	시카고대 유학
	연구원	박 기 성	79. 3. 1~80. 6.10	부산대
	책임연구원	홍 보 업	80. 1. 1~80.12.31	서울대
1981	연구원	박 인 호	80. 3. 1~81. 1.20	동아대
	연구원	김 임 득	80.10. 8~81.12.24	카나다 알버타대 유학
	연구원	조 현 주	79. 2. 1~81. 4.27	이화여대
	주임연구원	홍 순 정	79. 2.15~81. 6.17	East Western Center 유학
1982	책임연구원	이 정 근	73. 6.25~82. 3.17	직업훈련연구소
	연구원	김 진 구	79.11. 1~82. 4.15	직업훈련연구소
	연구원	김 영 철	82. 4.12~82. 8. 9	(61페이지에 계속)

내방 인사

○ 8월 4일 태국 감사실장 Mr. Ob Tong Kaimook 외 1명이 본원을 방문, 본원 현황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살펴 보았다.

○ 8월 12일 세계 교육 협회(W.E.F) 제31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Dr. Shah 외 11명이 본원을 내방, 본원 현황 및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청취하였다.

○ 8월 16일 일본 교육 학회 Yoneji Ebitani 외 1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교육 과정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였다.

○ 8월 16일 일본 국립 교육 연구소(NIER) Kawano Kajvtoyo 외 11명이 본원을 내방, 「The Role of KEDI and Current Issue in Korea Education」라는 제하의 신 세호 부원장의 강연회에 참석했다.

○ 9월 14일 인도네시아 교육 문화성 장관 Dr Daoed Yoesoeb 외 1명이 내방, 본원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해외 출장

○ 홍 웅선 원장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열린 태평양 지역 교육 협력을 위한 자문 회의에 참석했다.

○ 최 종운 방송 통신 교육 연구실장이 방송 통신 교육 관계 자료 수집을 위해 8월 25일부터 17일간 카나다, 미국, 일본의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9월 10일 귀국하였다.

○ 홍 기형 기획조정실장은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였다.

○ 윤 정일 교육 발전 연구부장이 미국, 멕시코, 일본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시찰차 9월 18일 출국하였다.

○ 유 삼태 예·체능 교육 연구실장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비춘 스포츠 제반 원리 채택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세미나 및 협의회

○ 8월 13일 부터 2일간 정박아 직업 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가 대구대 김 정권 교수 외 8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8월 31일부터 2일간 국민학교 산수 4·5·6학년 1학기 정본 교과서 연구진 협의회가 단국대 구 광조 교수 외 11명의 원외 인사와 원내에서 담당 연구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과정 연구부 제 1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9월 7일부터 3일간 기술 교사 교육자를 위한 국제 세미나가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주최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쉬, 필리핀, 스리랑카 등 6개국 대표를 포함한 원외 인사 Mr. Quresh 외 7명, 원내인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원내 소식

○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국 사회과 교과서 저자 초청 세미나가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미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Robert Horper 교수를 비롯, 20여 명의 교과서 저자 및 편집인이 참가한다.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자료의 제공으로 교과서 집필에 도움을 주게 될 이 세미나는 서울대 구 영록 교수와 대한 교육 연합회 류 형진 박사의 기조 연설에 이어 강의 및 토의식으로 진행된다.

○ 8월 11일 데이타 통신 방식에 의거 K.C.C (한국전자계산개발〈주〉)와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이 본원 연구 자료실에 설치되었다. 이는 교육 연구 통계 분석 업무 및 교육 자료 정보의 전

산 처리, 경영 관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 8일 28월 본원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장기 근속자 및 본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 9월 1일 본원 대강당에서 9월 월례 조회가 있었다. 월례 조회를 마치고 한양대 김 용운 박사의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의식"에 관한 교양 강좌를 가졌다.

◎ 인사 동정 ◎

○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변 영계 책임 연구원 (8월 20일부)과 고 영희책임 연구원(9월 6일 부교)이 교육 과정 연구부 교육 과정 조정실로 발령되었다.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강 무섭 책임 연구원이 10월 1일 교육발전연구부 정책1실로 발령되었다.

○ 박 덕규 책임 연구원이 10월 1일 교육발전 연구부 정책 2실로 발령 되었다.

○ 미국 피츠비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박 도순 책임 연구원이 10월 1일 교육과정 연구부 교육과정 조정실로 발령되었다.

○ 남 미영 연구원이 10월 1일 교육과정 연구부 교육과정 조정실로 발령 되었다.

◎ 원내 행사 ◎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는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연구 개발로 국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본원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 및 청사 증축 기념 행사를 갖는다.

「2000년대의 사회 발전과 교육」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중심이 될 이번 행사에는 국내의 교육학 관계 석학과, 관계 인사가 참석, 자리를 빛내 주게 될 것이다.

행사 기간에는 본원이 10년간 연구 개발한 연구 보고서·교재 등의 각종 「출판물 전시회」와 10년의 발자취가 담긴 각종 「사진 전시회」도 있을 계획이다. 특히, 본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일선에서 후진 양성에 헌신하고 있는 전직 직원을 위한 「재상봉의 날」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국제 세미나 등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청사 준공식 ▩

· 일시 : 11월 3일(수)
· 장소 : 본원

▩ 국제 세미나 ▩

· 일시 : 11월 5~6일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제
  제 1 부; "2000년대의 한국"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사회·문화 발전, 과학 기술 발전, 종합 보고)
  제 2 부; "2000년대를 향한 교육의 과제"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종합 보고)

▩ 국내 세미나 ▩

· 일시 : 11월 8일(토)
· 장소 : 본원 대강당
· 주제 : 「KEDI의 발전 과제」
  「KEDI의 발전 전망」

▩ 출판물 및 사진 전시회 ▩

· 일시 : 11월 3~8일
· 장소 : 신청사 전시실

▩ 재상봉의 날 ▩

· 일시 : 11월 6일(토)
· 장소 : 본원 신청사 회의실

KBS 3 TV

●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특별히 개발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각 교과의 특성을 포괄적·단계적으로 다루어 내용이 충실하며, 시청 전후에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한 방송교재의 혁신판이다!

고교교육방송교재

삼화서적주식회사		교 · 학 사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고교영어	고교영어	고교국어	
고3영어	고3영어	고3국어	
국민윤리	고교국어	수학 I 상	
국 사	고3국어	수학 I 하	
정치경제	수학 I 상	고3수학	
사회문화	수학 I 하	물 리	
국토지리	고3수학	화 학	
인문지리		생 물	
세 계 사		지구과학	

○ 고교 교육 방송 주간 편성표 ○

구분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본방송	KBS 3	19:00 19:30	수학 I	수학 I	수학 I	고교 영어	고교 영어	고교 영어
		19:30 20:00	국어1	국어2	물리	정치경제 세계사	화학	국토지리 인문지리
		22:00 22:30	고3 영어	고3 영어	고3 국어	고3 국어	고3 수학	고3 수학
		22:30 23:00	생물	국사	지구 과학	사회 문화	국민 윤리	진로 지도
재방송	MBC	05:30 06:00	고3 수학	고3 수학	생물	국사	지구 과학	사회 문화
		06:00 06:30	국민 윤리	진로 지도	고3 영어	고3 영어	고3 국어	고3 국어

※ MBC TV 재방송은 본 방송 2일 후에 방영됨.

격월간 교 육 개 발 제4권5호 · 통권20호

1982년 10월 5일 인쇄 · 1982년 10월 10일 발행

등록 바-574 (1975년 8월 20일)

발 행 인 홍 웅 선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20-1

전화 567-5121 · 567-5021

인 쇄 처 신 성 인 쇄 사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아님.